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A research on dependent nouns for unit in modern
Korean language**

Yang Ha-Ya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Kang Yeong Bong, Prof. of Korean education
Kim Tae Gone, Prof. of Korean education
Song hyeon jung, Prof. of Korean education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國文抄錄>

현대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연구

梁 하 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泰琨

이 연구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의존명사의 하위범주인 단위성 의존명사를 연구하였다.

본고에서는 단위 의존 명사의 의미를 평전해 볼 것이다. 단위 의존 명사의 의미 분석은 고유어계와 한자어계, 외래어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인데, 외래어계 단위 의존 명사는 대체로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도량형 단위 의존 명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어휘를 다 의미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고유어계와 한자어계로 두 가지 분류기준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나눈 후 의존명사로만 쓰이는 것과 자립명사로도 쓰이는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관정 기준은 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통사적 기준으로는 관형 성분에 의존적이고,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의미적 기준은 구체적인 지시체가 없는 형식적 의미를 지니고, 단위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썸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들 수 있다.

III장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분류와 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관형 성분 및 조사 제약이 일반 의존명사의 그것만큼 다양하지 못하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관형 성분으로 수관형사만을 취하며 조사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자립명사와 같이 조사가 두루 붙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의존명사와 같은 문법적 기능에 따른 분류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분류는 주로 의미적 특징 및 기능에 따라 구분이 되었다.

IV장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가운데에는 의존명사만으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립명사가 의존명사의 기능을 띠는 경우도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가운데에는 의존명사만으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립명사가 의존명사의 기능을 띠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대체로 일반 명사에서 발달했음을 보여 준다. 의존명사로만 쓰이는 경우와 의존명사와 자립명사로 쓰이는 경우 등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틀어 ‘분류사(分類詞, classifier)’라 부르기도 한다.

V장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2
II. 단위성 의존명사의 특징	5
1. 의존명사의 개념	5
2. 단위성 의존명사의 개념	6
3. 단위성 의존명사의 분포와 기능의 측면	6
III. 단위성 의존명사의 분류와 용법	9
1) 고유어계	
(1) 길이	12
(2) 넓이	17
(3) 부피	19
(4) 무게	31
(5) 액수	32
(6) 시간	33
(7) 동물	35
(8) 식물	36
(9) 장소	36
(10) 횟수	37
(11) 거리	41
(12) 무생물	41
2) 한자어계	



(1) 길이.....	46
(2) 넓이.....	48
(3) 부피	50
(4) 무게	59
(5) 액수	60
(6) 시간.....	61
(7) 에너지.....	65
(8) 사람.....	65
(9) 동물.....	67
(10) 식물.....	67
(11) 장소.....	68
(12) 횟수.....	68
(13) 거리	72
(14) 무생물	73
IV. 단위성 의존명사의 발달.....	83
V. 결론.....	97
※참고문헌.....	99
※Abstract.....	102



현대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연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의존명사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의존명사의 목록이 완벽하게 작성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늘 개방적이다.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의존명사의 설정 기준에 따라 그 목록은 개방적일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단위성 의존명사의 목록설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먼저 그 성격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특성을 기술하는 것은 단위성 의존명사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의존명사의 성격을 밝히고 그 중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개념을 살핀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성격 정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의존명사가 가지는 통사적 의존성이고, 다른 하나는 분포와 기능의 측면이다.

예를 들면 통사적인 측면인데,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의존성에서 차이가 있다. 자립명사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관형성분 역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성분이 아닌데 반해 의존명사는 문장에 자립적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형성분에 의존해서만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법화 초기 단계의 형태로 아직 완전히 의존명사화 하지 않은 형태는 관형성분에 의존적인 점에서는 의존명사와 다른 점이 없지만 관형사형 어미나 조사 그리고 상위문 서술어 선택에 있어서 의존명사보다는 제약이 덜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자립명사가 다의화하여 쓰일 때 그 중 어느 특정한 통사적 환경에서 변화된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점차 그러한 통사적 환경에서 쓰이는 형태는 원래의 자립명사와 분리되어 의존명사로 전환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립명사에서 전환된 의존명사는 제한된 통사적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존명사는 그 앞에 관형어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크게

수사가 아닌 관형어나 명사를 수반하는 일반 의존명사와 수량단위를 의존명사로 하는 단위성 의존명사로 나뉜다. 그리고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사/수량표시 + 의존명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한정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의존명사들과는 차이를 갖는다. 즉 ‘개 다섯 마리’나 ‘다섯 마리의 개’처럼 의존명사 앞에 수사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존명사는 언제나 의존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많은데 비하여 수량 단위 의존명사는 자립명사로도 쓰이는 수가 많다. 왜냐하면 수량 단위 의존명사는 자립명사에서 전용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종류와 용법에 대해 설명한 후에 이것을 밝히기로 하겠다.

2. 연구 방법

의존명사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는 최현배(193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해서 최초로 의존명사가 관계대명사나 대명사와는 다른 성격의 명사로 다루어졌다. 최현배가 언급한 의존명사는 후에 단위성 의존명사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최현배(1937)의 의존명사에 대한 내용은 1932년 『한글』 지에 발표한 것과 거의 비슷하나, 의존명사의 하위분류로 ‘셈덩이 불완전한 이름씨를 하나 더 첨가시킨 점이 다르다.’¹⁾

정열모(1946)는 의존명사를 명사의 가장 발달된 형태라 하고 형식명사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 형식이 있다는 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의존명사를 분류할 때 정해진 틀에 근거하여 연구를 하도록 하였다.

주시경(1910)은 ‘것, 바, 줄’ 등을 ‘언잇’이라 하여 대임(대명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 뒤의 김두봉(1923)은 ‘매임대임’이라 하여 역시 관계대명사로 보면서 주시경과 대동소이한 설명을 베풀고 있다. 안확(1923)만이 의존명사를 접미사로 간주하였다.

김민수(1960)는 처음으로 의존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는 자립명사와 대비된 용어로 의존용언과 의존명사는 양태범주와 밀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의존명사 가운데 소위 보통 의존명사와 부사성 의존명사는 명사성 접미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여 수량단위 의존명사만을 의존명사로 구분하고 있다. 정열모(1946)에서는 형식명사란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실질 뜻을 지니지 못한 명사로 처리하여 문장 안에서의 기능적 특징에 주목하는 독특한 견해를 보였다. 또한 형식명사의 갈래를 제1종 형식명사, 제2종 형식명사로 나누어 관형형 밑에서 쓰이는 형식명사는 제1종으로, 지시적 의미의 대응적 사용이 가능한 ‘것, 데’는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1) 최현배(1965:214-215)에서는 수단위 의존명사는 ‘길이-자, 치, 푼 이 있고, 술,-섬, 말, 되, 흙이 있으며 무게-양, 돈, 푼이 있고, 돈-양, 돈, 푼, 리, 환, 진, 리가 있고, 다른 것-사람, 채, 자루, 층, 쪼레, 필, 마리, 그루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문법과 구조주의문법 그리고 생성문법의 논의를 거쳐 90년대에 들어 전통문법과 생성문법의 해석을 포괄한 것으로는 임동훈(1991)을 들 수 있다. 임동훈은 특히 의존명사에 통사론적 논의의 성격을 띠었다. 단위성 의존명사 자체가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인식되는냐, 예를 들어서 둥그런 공 모양으로 인식되는냐(‘밤 한 톨’) 납작한 모양으로 인식되는냐(‘종이 한 장’) 하는 것도 분류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분류사와 호응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명사들을 분류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냐, 즉 길게 꿰었느냐(‘조기 한 두름’), 첩첩히 포개었느냐(‘창호지 한 연’) 하는 것 등도 분류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식사시간 한 시간’에 쓰인 분류사와 ‘사고 한 건’에 쓰인 분류사의 분류를 위해서는 사람이 시간을 공간(일, 사건)에 우선해 인식하고 있는냐, 아니면 공간을 먼저 인식하고 있는냐, 그것도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병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냐 하는 것도 분류 기준의 하나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재인(1985)에서는 의존명사를 단위성 의존명사와 보편적인 의존 명사로 나누고, 보편적인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관형형어미의 제약과 통사상의 기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주행(1987)은 의존명사라 부르고, 보통 의존명사로 ‘것, 간, 나름, 나위, 녀석, 녀, 년, 노릇, 놈, 덧, 데, 등, 등지, 따름, 나위, 때, 때문, 모양, 무렵, 바, 밖, 법, 분, 뻔, 뵈, 섰, 손, 수, 식, 이, 자, 적, 점, 줄, 즈음, 지, 짝, 쪽, 참, 축, 치, 탓, 터, 폭, 해’ 등을 부사성 의존명사로 ‘검, 고, 김, 대로, 동안, 등, 듯, 판, 마련, 만, 만큼, 바람, 빨, 성, 양, 중, 족족, 즉, 직, 차, 채, 채, 통’ 등을 논의 하였다.

의존명사에 대한 논의로는 이병모(1995)가 있다. 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형식명사의 의존성 정도를 선·후행요소와의 통합관계에 따라 수치화한 것으로, 크게 통합관계에 제약이 없는 것, 후행요소는 제약이 없고 선행요소만 제약이 있는 것, 선행요소와의 통합관계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앞선 명사의 지시 대상이 홀수임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복수임을 나타내는 무리수량 단위성 의존명사로 하위 분류된다. ‘술 한 병’에서의 ‘병’은 낱수량 단위성 의존명사를, ‘달걀 한 꾸러미’에서의 ‘꾸러미’는 무리 단위성 의존명사의 예이다.

단위성 의존 명사에 대한 연구도 일반 의존 명사의 연구처럼 7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전 시기에는 의존명사의 범위를 논의하면서 일반 의존명사와 구분 되는 점을 바탕으로 이들의 개념 및 문법적 특징을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단위 의존명사만의 고유한 통사적, 의미적 특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통사적 특징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 이익섭(1973), 김영희(1976)을 들 수 있는데, 이익섭(1973)에서는 단위 의존명사를 수량사라 명명하면서 수량사로 이루어진 수량사문이 이중주어 구문과 다름을 주장하였다.

임동훈(1991)은 형식명사라고 일컫고 ①일반 형식명사에는 대상성 형식명사로

‘것’류에 ‘것, 분, 손1, 이, 자, 치1, 데, 바1’ 등을 ‘쪽’류에 ‘적, 법1, 적, 축, 편, 쪽’ 등을 ‘나위’류에 ‘나위, 수, 턱, 리, 줄’ 등을 ‘해’류에 ‘해, 게, 탄, 치2, 만1’ 등을 서술성 형식명사로 ‘따름’류에 ‘따름, 셈, 터’등을 ‘나름’류에 ‘나름, 뿐, 때문’등을 부사성 형식명사로 논의하였다. ‘무렵’류에 ‘무렵, 즈음, 동안, 녘, 김, 바람, 통, 차, 참, 터1, 섰,관, 빨, 조’ 등을 ‘듯’류에 ‘양,척, 체, 듯, 등, 지, 찬, 바2, 만, 법1, 뻘, 성, 손2, 만틈, 대로, 족족, 겹, 등, 채’등을 논의 하였다. ②수량 단위 형식명사로는 부류 형식명사로 묶음에 ‘쌈, 녹, 동, 두름, 켜, 접, 갓, 툇, 죽, 못, 테’ 등을 재로에 ‘명, 필, 마리, 권, 벌, 채, 구, 모, 새, 매, 척, 문’ 등을 도량 형식명사로 부피에 ‘홉, 되, 섬, 작, 손, 모숨, 술, 자밤’ 등을 길이에 ‘치, 자, 발, 바람, 문, 마장’ 등을 무게에 ‘푼, 근, 냥, 돈’ 등을 논의 하였다.

이철수(1996)는 의존명사라고 부르면서, 보편성 의존명사로 ‘분, 이, 것, 데’ 등을 주어성 의존명사에 ‘지, 수, 리’ 등을 서술성 의존명사에 ‘따름, 뿐, 터’ 등을 부사성 의존명사로 ‘대로, 양, 듯, 체, 척, 만큼, 채, 뻘, 줄’ 등을 단위성 의존명사로 ‘개, 분, 마리, 말, 섬, 자루, 채’ 등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목록을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하여 목록을 설정하고, 이들의 사용방법을 고구하고자 한다. 목록설정을 한다면 의존명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단위성 의존명사의 연구를 이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외래어계 단위명사는 목록만 제시하고, 분석하지 않으며 고유어계 단위명사와 한자어계 단위명사만을 밝힌다.

II. 단위성 의존명사의 특징

1. 의존 명사의 개념

의존명사란 자립성이 없는 특수한 명사를 뜻하며 그 앞에 관형어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의존 명사는 조사나 어미, 접사와 같이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인다는 점에서는 의존 형태소의 테두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명사가 쓰이는 환경에서 나타나므로 명사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존명사는 관형어와 조사와의 통합에 있어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의존명사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다양하게 규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존명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려고 한다.

정렬모(1946)는 ‘형식명사는 한 개념을 분해하여서 다른 말에 실질 뜻을 나타내게 하고 자기는 형식 뜻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법이 분업적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자를 자유로 선택하여서 결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형식 명사는 명사의 가장 발달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어에서는 하도 많은 형식명사가 있어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라고 정의하였고, 김민수(1971)는 ‘의존명사는 실질의 뜻이 없고 다만 문법적으로 기능이 명사와 동일하다. 혹은 형식명사나 의존명사라고도 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최현배(1975)는 ‘안용근 이름씨라는 것은 용근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곧 제 홀로는 쓰이지 못하고 항상 매김씨(관형사)나 풀이씨의 매김꼴(관형사형)이나 매김씨 노릇을 하는 이름씨 뒤에 매이어 쓰이는 이름씨를 이름이니 이를 또 매인이름씨(부속명사)라고 일컫느니라.’고 정의하였다. 염선모(1979)는 ‘제 홀로는 의미를 가질 수도 없고 쓰일 수도 없으나 관형사나 풀이씨의 관형사형과 어울려 임자씨 노릇을 하는 낱말을 일컬어 불완전명사라고 한다.’고 일컬었다.

이상태(1985)는 ‘매인이름씨는 홀로 설 수 없는 이름씨들이다.’라고 일컬었다. 이주행(1988)은 ‘의존명사란 자립성이 없고, 관형어-용언의 관형형, 체언, 관형사 등-의 선행을 필수조건으로 하며, 주로 상위문 서술어의 기능부담량을 줄이고, 언어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어(語)를 대신하여 지시하고, 하위문을 상위문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주로 하는 불가산명사인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서정수(1994)는 ‘의존명사란 자립성이 없는 특수한 명사를 일컫는다. 곧 그 앞에 어떤 한정 성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홀로 쓰일 수 없는 비자립 명사라는 것이다.’

의존명사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다. 위의 여러 설에서 의존명사의 특성을 정리하면 1.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2. 관형어의 선행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3.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못한다. 4. 조사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존명사의 개념을 정의 할 수 있다.

2. 단위성 의존명사의 개념

의존명사 중 수량단위를 의존명사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성 의존 명사는 < 수사/수량표시 + 단위성 의존명사 >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한정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의존명사들과는 차이를 갖는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기원적으로 실질명사였던 것이 문맥에 따라 단위성 의존명사로 기능하다가 차츰 실질명사의 기능을 잃고 단위성 의존명사로 굳어지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²⁾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며, 그 앞에는 수사나 수관형사와 같은 수량 표현이 온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가운데에는 의존명사만으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립명사가 의존명사의 기능을 띠는 경우도 있다.³⁾

의존명사로만 쓰이는 경우와 의존명사와 자립명사로 쓰이는 경우 등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틀어 ‘분류사(分類詞, classifier)’라 부르기도 한다.⁴⁾

3. 단위성 의존명사의 분포와 기능의 측면

단위성 의존명사는 < 사물명 + 수사 + 단위성 의존명사 >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한국어 수량표현의 독특한 면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X자 Y치 따위의 의존명사는 ’옷감‘ 이라는 피 수식어 뒤에 놓이게 된다. (옷감 열 자 두 치) 그리고 이외의 것들은 < 사물명 + 수사 + 단위성 의존명사 >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 ‘한 섬 두 말의 쌀’이나 ‘열 두 마리의 개’ 보다는 ‘쌀 한 섬 두 말’과 ‘개 열 두 마리’가 더욱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이 < 사물명 + 수사 + 단위성 의존명사 >의 수량단위 방식은 < 관형어 + 의존명사 >와 같은 한국어의 일반 수식 관계와는 정반대가 된다. 다만 특수한 문맥의 제약이나 관형사구로 쓰일 때는 그 어순이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다. 즉, ‘그 여자는 네 아이의/ 아이 네 명의 어머니다.’에서 ‘네 아이’를 ‘아이 네 명’으로 간편하게 표현하는 게 더욱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어순이 간소화 되는 것이다.

2)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익섭(1973), 김영희(1976), 임홍빈(1979), 유동준(1983), 채완(1990)등을 들 수 있다.

3)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문법론, 68쪽

4) 위의 책, 68쪽.

단위성 의존명사는 관형절을 취할 수 없고, 격조사와 결합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형식명사와 구별되는데, 그 특징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단위성 의존명사는 보어로 수사를 요구하며 선행 명사구에 의해서 의미·화용론적으로 선택된다. 둘째, 단위성 의존명사는 개체화와 열거의 기능을 한다. 셋째, 선행 명사구와 수량단위 의존명사로 이루어진 구성은 통사론적 동격 구성이며, 의미론적 서술구성이다. 통사론적 동격 구성이란 수량 단위 의존명사가 서술어에 대해 가지는 자격은 선행 명사구의 그것과 같다는 뜻이며, 의미론적 서술구성이란 선행 명사구에 대해서 단위성 의존명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단위성 의존명사는 부류 의존명사와 도량 의존명사로 나뉜다.⁵⁾

단위성 의존명사의 판정 기준은 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통사적 기준으로는 관형 성분에 의존적이고, 수관형사와 결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의미적 기준은 구체적인 지시체가 없는 형식적 의미를 지니고, 단위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썸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들 수 있다.

단위 의존 명사는 일반 의존 명사와 구분되는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때 자립 명사가 단위 의존 명사가 가지는 특징을 일시적으로 획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립 명사를 단위 의존 명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 되었다.⁶⁾

(1) 가. 낮선 사람이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다.

나. 집 근처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다.

가령 (1)의 ‘사람’과 같이 자립 명사로 쓰이는 어휘가 (1나)에서처럼 수사와 어울려 쓰이면서 사람을 세는 단위의 기능을 획득한 것이라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1가)의 ‘사람’이나 (2나)의 ‘사람’이 모두 사람이란 개체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 명사일 때의 의미와 수사와 결합하여 쓰일 때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단위 의존 명사가 구체적인 지시체가 없는 형식적 의미를 지닌 어휘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람’은 수사와 어울려 쓰이더라도 단위 의존 명사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수사와 어울려 쓰이더라도 개체지시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은 엄밀히 말하면 단위 의존 명사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2) 가. 밥 공기이지만 무척 세심하게 만들어졌다.

나. 얼마나 끓주렸던지 그는 밥 세 공기를 단숨에 먹어 버렸다.

위(2가)의 예에서 ‘공기’는 ‘밥을 담아 먹는 위가 벌어지고 밀이 좁은 작은 그릇’을 의미하는 자립 명사인데, 이것이 (2나)에서처럼 단위 의존 명사가 지니는 전형적인

5) 임동훈(1991:58-59)에서 수량 단위 의존명사를 논의하였다.

6) 목록은 「표준」의 의존 명사 목록을 추출한 뒤 위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 작업을 거친 것이다.

통사 구조 속에 들어오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어휘적 의미를 잃고 임시적으로 ‘밥’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기능하게 된다. 즉 개체 지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이것이 수사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도 개체 지시성이 남아 있다면 위(2나)의 문장을 주체가 사물을 먹어 버린 꼴이 되므로 서술어의 선택 제약을 어겨 비문이 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의 ‘바퀴’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3) 가. 자동차 바퀴가 움직인다.

나. 체육 시간에 운동장 세 바퀴를 돌았다.

다. 체육 시간에 힘든 바퀴를 돌았다.

(3가)의 ‘바퀴’도 위의 ‘공기’의 예처럼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3나)에서와 같이 수사와 어울려 쓰이게 되면 둘레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3나)의 ‘바퀴’는 본래 가지고 있던 어휘적 의미를 잃었을 뿐더러 (3다)와 같이 관형절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그것이 자립 명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형절과의 제약은 단위 의존 명사가 지니는 전형적인 통사적 제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보였다는 것은 곧 ‘바퀴’가 단위 의존 명사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Ⅲ. 단위성 의존명사의 분류와 용법

단위성 의존명사는 관형 성분 및 조사 제약이 일반 의존 명사의 그것만큼 다양하지 못하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관형 성분으로 수관형사만을 취하며 조사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자립 명사와 같이 조사가 두루 붙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의존명사와 같은 문법적 기능에 따른 분류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한 분류는 주로 의미적 특징 및 기능에 따라 구분이 되었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분류는 최현배(1961)에서부터 논의되었는데, 최현배(1961)에서는 단위성 의존 명사를 길이, 술, 무게, 돈, 다른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광수(1975)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크게 도량형(度量衡), 화폐(貨幣), 동량(動量), 인(人), 동(動), 물(物)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 구분하고 있다. 성광수(1975)의 특징은 ‘동량(動量)’이란 영역을 설정하여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 의존 명사를 포함시켰다는 것과 ‘인(人)·동(動)·물(物)’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를 명사와의 호응 관계에 따라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후의 여러 연구에서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 및 기능에 따른 분류가 제시되었는데, 유동준(1983)에서는 인간의 지각 개념을 바탕으로 척도, 모양, 배열, 인성, 수량의 다섯 가지 기본 범주에 따라 단위성 의존명사를 하위 구분하였으며, 채완(1990)에서는 명사를 수량화(quantify) 해주는 도량형 분류사와 명사를 특질화(qualify) 해주는 부류 분류사로 나누고, 도량형 분류사는 표준화된 도량형과 일시적 도량형으로, 부류 분류사는 다시 명사의 기능에 따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문화생활, 기계·기구류, 행위, 사건, 모양, 인체로 구분하였다.

한편 곽추문(1997)에서는 부류, 도량, 동작으로 분류하고, 다시 부류를 개체와 집체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단위 의존 명사를 부류, 도량과 같은 위치에서 다루었는데, 동작 역시 행위나 사건 명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류에서 하위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형식(2001)에서는 도량과 부류로 나누고 부류성 분류사를 사물과 사태로 나누고 있다.

제시한 앞선 연구들은 단위성 의존명사의 자체의 의미보다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속성, 명사의 기능, 심리학, 문화인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명사를 범주화 해준다는 분류사의 관점으로 단위성 의존명사를 구분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단위성 의존명사의 고유한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 분류도 주관적으로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길이, 넓이(면적), 부피, 무게, 액수, 시간, 예

(grade), 그로셴(groschen), 그로스(gross), 그로스톤(gross ton), 기니(guinea), 길더(guild), 길버트(gilbert), 나노미터(nanometer), 나노-앰프(nanoamp), 네퍼(neper), 노르말(Normal), 노이(noy), 노트(knot), 뉴턴(newton), 니트(nit), 다릭(daric), 다스(dasu), 다인(dyne), 다임(dime), 달란트(talent), 달러(dollar), 데나리온(denarius), 데니어(denier), 데시그램(decigram), 데시-리터(deciliter), 데시-미터(decimeter), 데시-벨(decibel), 데시-아르(deciare), 데카그램(decagram), 데카르(decare), 데가리터(decaliter), 데카-미터(decameter), 동(dong), 드라크마(drachma), 드램(dram), 디그리데이(degree day), 디나르(dinar), 디르함(dirham), 디바이(Debye), 디옵터(dioptr), 렌텐마르크(Rentenmark), 램(rem), 랩(rep), 로드(rod), 롱톤(long ton), 린트켄, 루멘(lumen), 루블(rubl'/Rub), 루피(rupee), 루피아(rupia), 리라(lira), 리브르(livre), 리알(rial), 리알(riyal), 리엘(riel), 리터(liter), 릴(reel), 림(ream), 링기트(ringgit), 링크(link), 마르카(markkaa), 마르크(Mark), 마이크로-그램(microgram), 마이크로-미터(micrometer), 마이크로마이크로-퀴리(micromicrocurie), 마이크로-세컨드(microsecond), 마이크로-옴(microhm), 마이크로미크론(micromicron), 마이크로퀴리(microcurie), 마일(mile), 마하(Mach), 마헤(mache), 맥스웰(maxwell), 메가데스(mefadeath), 메가다인(megadyne), 메가바(megabar), 메가-바(meagbar), 메가-바이트(megabyte), 메가-비트(megabit), 메가-사이클(megacycle), 메가톤(megaton), 메가-헤르츠(megahertz), 메그옴(megohm), 메브(MeV), 메시(mesh), 모4(mho), 모라(mora), 몰(mole), 미크론(micron), 미터(meter), 미터-톤(meter ton), 밀(mil), 밀리(←millimeter), 밀리갈(milligal), 밀리그램(milligram), 밀리몰(millimole), 밀리미크론(millimicron), 밀리미터(millimeter), 밀리-바(millibar), 밀리-볼트(millivolt), 밀리-암페어(milliampere), 밀리-와트(milliwatt), 밀리-퀴리(millicurie), 바1(bar), 바(var), 바트(baht), 박스(box), 반¹(barn), 발보아(balboa), 배럴(barrel), 베가톤(begaton), 베브(bev), 베크렐(bequerel), 보루(boru), 보메(baume), 볼트(volt), 볼트암페어(voltampere), 부셸(bushel), 비르(birr), 비티유(BTU), 빌리언일렉트론볼트(billion electron volt), 사이(sai), 사이클(cycle), 사탕(satang), 상탐(cetime), 서클러밀(circular mil), 셰겔(Sheqel), 센트(cent), 센티(←centimeter), 센티-그램(centigram), 센티-리터(centiliter), 센티-미터(centimeter), 셀로(celo), 쇼토톤(short ton), 수3(sou), 스크루펠(scrupel), 스테라디안(steradian), 스토크스(stokes), 스틸브(stilb), 스푼(spoon), 스피들(spindle), 시버트(sivert), 시(cc), 실링1(Schilling), 실링2(shilling), 아르(are), 아르피엠(rpm), 아보그램(avogram), 아인슈타인(Einstein), 암페어(ampere), 앵커(anker), 야드(yard), 에르그(erg), 에르스텟(oersted), 에스쿠두(escudo), 에이유(AU), 에이치프유(HFU), 에이치피(HP), 에이커(acre), 엔(en), 엘레(Elle), 엠더블유디(MWD), 엠엠시(MMC), 엠피에이치(mph), 옥타브(octave), 온스(ounce), 옴(ohm), 옹스트롬(angstrom), 와트(watt), 외레, 웨버(weber), 위안(yuan), 유로(Euro), 유카와(Yukawa), 인치(inch), 일렉트론볼트(electron volt), 자

오(Jiao), 젠스키(jansky), 줄(jouel), 즈워티(Zloty), 지멘스(siemens), 질2(gill), 체르보네츠(chervonets), 체인(chain), 카셀(carcel), 카운트(Count), 카이저(Keiser), 칸(kahn), 칸델라(candela), 칼로리(calorie), 컵(cup), 캐럿(carat), 캔(can), 케이(K/k), 켈빈(kelvin), 코드(cord), 코루나(Koruna), 쿨롬(coulomb), 쿼터(quarter), 퀴리(curie), 키타(quintal), 큐빗(cubit), 큐섹(cusec), 크로나¹(krona), 크로네(krone), 크로커다일²(crocodile), 킬로그램(kilogram), 킬로그램미터(kilogrammeter), 킬로그램칼로리(kilogramcalorie), 킬로미터(kilometer), 킬로메가사이클(kilomegacycle), 킬로바(kilobar), 킬로볼트(kilovolt), 킬로볼트-암페어(kilovolt-ampere), 킬로사이클(kilocycle), 킬로스터(kiloster), 킬로암페어(kiloampere), 킬로옴(kilohm), 킬로와트(kilowatt), 킬로줄(kilojoule), 킬로칼로리(kilocalorie), 킬로퀴리(kilocurie), 킬로톤(kiloton), 킬로파섹(kiloparsec), 킬로헤르츠(kilohertz), 토르²(torr), 토리첼리²(Torricelli), 파운드¹(pound), 파인트(pint), 펄롱(furlong), 페니(penny), 페니히(pfenning), 페르미¹(fermi), 페세타(peseta), 펜스²(pence), 포린트(forint), 포인트(point), 폰트(funt), 프사이(psi), 프사이그(psig), 피치(pitch), 헥토-그램(hectogram), 헥토-리터(hectoliter), 헥토-미터(hectometer)

이 논문에서는 현대 국어 단위성 의존명사 중 고유어계와 한자어계만을 뽑아 다루도록 하겠다.

1. 길이, 2. 넓이, 3. 부피, 4. 무게, 5. 액수, 6. 시간, 7.에너지, 8. 사람, 9. 동물, 10.식물, 11. 장소, 12. 횟수, 13. 거리, 14. 무생물로 분류한 후 예시를 든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를 평전해 볼 것이다. 단위성 의존명사의 의미 분석은 고유어계와 한자어계, 외래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외래어계 단위성 의존명사는 대체로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도량형 단위성 의존명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어휘를 제시하여 의미 분석을 하지 않겠다.

우선 고유어계와 한자어계의 단위성 의존명사로 나누고 이들을 의미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눈 후 의존명사로만 쓰이는 것과 자립명사로도 쓰이는 것을 나누어 고찰한다.

1. 고유어계

1) 길이

(1) 길

길[㉠]

①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 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도도⁷(道途). ◻한적한 길/ 길이 막히다/ 길이 끊기다/ 길을 건너다/ 길을 닦다/ 길을 트다/ 길을 따라 걷다/ 눈 옆에 길을 내다.

②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 ◻배가 다니는 길.

③걸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 ◻천리나 되는 길/ 고향으로 가는 길/ 시청으로 가는 길을 묻다/ 그는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었다. /갈 길이 머니 서두릅시다. / 우리는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④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이제까지 살아온 고단한 길/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길을 돌아본다.

⑤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분야. ◻배움의 길/ 승리의 길/ 평화의 길/ 학자의 길/ 강대국으로 가는 길/ 정상으로 향한 길/ 멀고 험난한 민주화의 길/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다/ 그는 지금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⑥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 ◻어머니의 길/ 스승의 길/ 남편과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내의 길이다.

⑦(주로 ‘-은/는/을 길’ 구성으로 쓰여) 방법이나 수단. ◻그를 설득하는 길/ 지혜를 찾는 길/ 표현할 길이 없는 감동/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 그를 찾을 길이 없다.

⑧(주로 ‘-은/는 길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 ◻그는 / 그렇게 소리를 친 후 그 길로 도망갔다./ 경찰에서 풀려나는 길로 나는 그 애를 따라 서울로 갔어.«김성동, 만다라»

⑨(‘-은/는 길에’, ‘-은/는 길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을 하였다. / 그는 출장 가는 길에 고향에 들렀다./ 그녀는 서점에 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길[㉠]의[㉡]뎡

(고유어 수 뒤에 쓰여) ①길이의 단위. 한 길은 여덟 자 또는 열 자로 약 2.4미터 혹은 3미터에 해당한다. ②길이의 단위. 한 길은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이다. ◻트럭에 실린 통나무는 굵기는 한 아름이 넘고 길이는 열길이 넘었다.

(2) 꼭지

꼭지[㉢]

①그릇의 뚜껑이나 기구 따위에 붙은 볼록한 손잡이. ◻냄비 꼭지. 주전자 꼭지 / 꼭지를 잡는다/ 꼭지를 틀다/ 꼭지가 망가진 수도에서는 항상 물이 새어 흐

르고 있었다. «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

②종이 연의 가운데에 붙이는 표.

③도리깨의 자루 머리에 꿰어 열을 걸어 돌게 한 나무 비녀못.

④ [식] 잎이나 열매가 가지에 달려 있게 하는 짧은 줄기. ¶사과 꼭지/ 고추 꼭지를 따다/ 꼭지가 시든 걸 보니 이 수박은 맛이 없겠다.

⑤ [역] 거 지나 탄군의 우두머리=꼭지판.

꼭지^단의^명

①모습을 지어 잡아맨 물건을 세는 단위. ¶아내의 산월이 임박했는데 아직 미역 한 꼭지 장만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저절로 암담해졌다. «이복명, 질소 비료 공장»

②길이의 단위. 실의 길이를 잴 때 쓴다. 한 꼭지는 스무 자로 약66.6미터에 해당한다.

③일정한 양으로 묶은 교정쇄를 세는 단위. ¶이번 주에는 원고 네 꼭지를 교정했다.

(3) 낫

낫^명

[어] 주시경이 만든 용어로, ‘종지사(終止詞)’를 이르는 말.

낫^단의^명

①접쳐서 파는 피륙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한 낫은 피륙을 한 번 접은 만큼의 길이이다. ¶비단 열 낫.

②화투나 투전과 같은 노름 따위에서, 셈을 치는 점수를 나타내는 단위. ¶다섯 낫.

(4) 끝

끝^명

①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시작과 끝/ 마루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복도 맨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는 독도가 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 회의가 길어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②긴 물건에서 가느다란 쪽의 맨 마지막 부분. ¶끝이 무디다/ 송곳 끝을 조심해라./ 막대기 끝에 그물을 매달았다./ 손가락 끝으로 뿌예진 창문에 글씨를 썼다.

③순서의 마지막. =압미(壓尾). ¶그가 끝으로 도착하였다./ 개최국이 끝에 입장

한다./ 끝으로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④ 행동이나 일이 있는 다음의 결과. ¶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다/ 오랜 고생을 한 끝에 결정을 하였다./ 오랜 여행 끝에 피로가 겹쳤다./ 그들은 3년 연애 끝에 결혼하였다./ 측들어서니 아무도 아는 체를 안하고 뿌루통히들 부어서 앉았는데,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끝 같았다. «염상섭, 취우»

끝[단]의[명]

=필(仄). ¶ 명주 한 끝/ 무명 세 끝.

(5) 바람

바람[문]

①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 ¶ 바람이 불다/ 바람이 일다/ 바람이 세다/ 바람 한 점 없다/ 바람에 종이가 날려갔다./ 바람에 촛불이 꺼지다.

② 공이나 튜브 따위와 같이 속이 빈 곳에 넣는 공기. ¶ 축구공에 바람을 가득 넣다/ 바퀴에서 바람이 샌다./ 공에 바람이 빠졌다.

③ 남녀관계로 생기는 들뜬 마음이나 행동. ¶ 그 여자만 생각하면 마음에 바람이 든다.

④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분위기 또는 사상적인 경향. ¶ 자유화 바람/ 민주화 바람/ 감원 바람/ 서구화 바람이 불어 닥치다.

⑤ '풍병(風病)'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바람이 도지다/ 바람을 맞다/ 바람을 다스리다.

⑥ 작은 일을 불려서 크게 말하는 일. ¶ 바람이 센 친구의 말이라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⑦ 남의 비난의 목표가 되거나 어떤 힘의 영향을 잘 받아 불안정한 일. ¶ 바람을 잘 타는 자리/ 위낙 바람이 센 자리라 늘 불안하다.

⑧ 남을 부추기거나 얼을 빼는 일. ¶ 동생은 공부하는 형에게 나가 놀자며 바람을 집어 넣는다.

⑨ 들뜬 마음이나 일어난 생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 아이는 뱃속에 바람이 잔뜩 들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왔니?

⑩ (주로 '바람같이', '바람처럼' 꼴로 쓰여) 매우 빠름을 이르는 말. ¶ 바람처럼 나타나다/ 바람같이 사라지다/ 출발 신호음이 떨어지자 선수들은 바람같이 내달았다.

바람[단]의[명]

길이의 단위. 한 바람은 실이나 썩기 따위 한 발 정도의 길이이다. ¶ 실 두 바람/ 한

바람의 새끼/ 신목(神木)에는 사오(四五) 바람 되는 허리를 종이 오려 꽃은 금줄로 둘러 있다. 《최남선, 심춘순례》 [바람<번박>[←발+ -암]/바람<훈몽>[←발+ -음]]

(6) 바탕

바탕[㉠]

① 물체의 뼈대나 틀을 이루는 부분. ¶ 아랫방 등잔걸이 바탕에 있는 광술에 불을 달려 가지고 나와서 뒤꼍으로 돌아가는 중에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홍명희, 임궏정》/ 때때로 청량리로 나가고 들어오는 전차 바퀴의 바탕에 스르릉 하고 갈리는 소리가 처량하게도 동대문 밖 고요한 공기를 울린다. 《나도향, 환희》

②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이루는 기초. ¶ 문화의 바탕/ 역사가 이루어진 바탕 / 그는 기존 공식을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다.

③ 타고난 성질이나 재질. 또는 체질. ¶ 바탕이 나쁘다/ 바탕이 좋다/ 어른들은 예의범절로 그 사람의 바탕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④ 그림, 글씨, 수(繡), 무늬 따위를 놓는 물체의 바닥. ¶ 바탕이 거친 옷감/ 아이는 하늘색 크레용으로 바타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바탕^{단의명}

① 길이의 단위. 한 바탕은 활을 쏘아 살이 미치는 거리 정도의 길이이다. ¶ 동진은 연무정 근처, 서진은 용연 근처에 주둔했는데 섬에서 불과 활 두 바탕 거리였다.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② 어떤 일을 한차례 끝내는 동안을 세는 단위. ¶ 씨름을 몇 바탕 하다. ③ 어떤 무렵이나 때. ¶ 그 시인이 늙을 바탕에 쓴 작품. [<바탕 <변소>]

(7) 뺨

뺨[㉠]

①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벌렸을 때에 두 끝 사이의 거리.

¶ 뺨을 재다/ 뺨이 크다.

② = 장뺨

뺨^{단의명}

길이의 단위. 비교적 짧은 길이를 잴 때 쓴다. 한 뺨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한껏 벌린 길이이다. ¶ 한 뺨/ 그 애가 너보다 적어도 두 뺨 정도는 더 크다.

(8) 아름

아름[㉠]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 또출네는 하늘과 땅을, 온 세상의 초목과 강물을 아름 속으로 품어 넣듯 두 팔을 활짝 벌리어... 《박경리, 토지》

아름^{단의명}

①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 두 아름 가까이 되는 느티나무. ②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두 팔을 둥글게 모아 만든 둘레 안에 들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 꽃을 한 아름 사오다 / 전날 초저녁 몇 아름이나 되는 장작으로 뜨겁게 달구어졌던 방은 어느새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이문열, 그해 겨울》

(9) 님

님^{단의명}

바느질에 쓰는 토막 친 실을 세는 단위. ¶ 한 님/ 두 님.

(10) 자

자^{단의명}

길이의 단위. 한 자는 한 치의 열 배로 약 39.3cm에 해당한다. =척(尺). ¶ 비단 너 자를 꿰다/ 얼마나 피곤한지 눈이 한 자나 들어갔다./ 키가 여섯 자나 된다./ 큰 사랑엔 본디 여섯 자가 넘는 큰 돈궤가 놓여 있었으나 근래엔 보이지 않았다. 《박완서, 미망》 / 땅이 한 치가 녹으면 한 치를 걷어 내고 반 자가 녹으면 반 자를 파내었다. 《이태준, 농군》

(11) 치

치^{단의명}

길이의 단위. 한 치는 한 자의 10분의 1 또는 약 3.33cm에 해당한다. =촌(寸). ¶ 세치 혀도 잘못 놀리면 큰 망신을 당한다. / 버드나무를 깎아 길이 다섯 자 여섯 치, 너비 다섯 치, 두께 여덟 푼으로 격식을 갖춘 중곤(重棍)이었다.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2) 넓이

(1) 같이

같이^단의^명

《주로 ‘하루, 이틀, 사흘’ 따위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논밭 넓이의 단위.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갈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약 2,000평 정도이다.

(2) 낚

낚^단의^명

납작한 물건을 세는 단위. 흔히 돈이나 가마니, 명석 따위를 셀 때 쓴다. ¶ 동전 한 낚/ 가마니 다섯 낚.

(3) 밭

밭^명

①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야채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 ¶ 밭 한 떼기/ 밭을 일구다/ 밭을 갈다/ 밭을 매가/ 밭에 씨를 뿌리다.

②어떤 식물이 많이 우거져 있는 땅. ¶ 인삼 밭/ 대나무 밭.

③어떤 자연물이 많이 들어간 평지. ¶ 흙 밭.

④장기판, 고누판, 윗판, 바둑판 따위에서 말이 머무르는 자리. ¶ 말을 밭에 놓다.

⑤바다에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곳. ¶ 파래 밭.

⑥어떤 사물의 바탕이나 토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는 마음 밭이 깨끗한 사람이다. 왕실과 사대부는 백성을 밭 삼아 농사를 지었다.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⑦남녀 생식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여자나 여자의 생식기를 남자의 씨에 상대하여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김윤식은 초림의 몸을 빌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체모가 제대로 빠진 남아를 하나 얻었다. 씨는 여물지 못해도 밭이 좋았나 보다.

밭^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장기판·고누판·윗판·바둑판 따위에서, 말이 머무르는 자리를 세는 단위. ¶ 세 밭을 가다.

(2) 섬지기

섬지기단의명

논밭 넓이의 단위. 한 섬지기는 볍씨 한 섬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한 마지기의 열 배이며 논은 약 2,000평, 밭은 약 1,000평이다. ¶한 섬지기/ 열 섬지기의 논/ 이 삼 년만 추수한 나락을 굴리면 백 섬지기 백오십 섬지기는 누워서 떡 먹기……. 《박경리, 토지》

3) 부피

(1) 가마

가마단의명

①갈모나 싹지 따위를 세는 단위. 한 가마는 갈모나 싹지 백 개를 이른다. ¶싹지 한가마/갈모 한 가마. ②《주로 갈모나 싹지 따위의 뒤에 쓰여》약간의 그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고리

고리단의명

소주를 사발에 담은 것을 묶어 세는 단위. 한 고리는 소주 열 사발을 이른다. ¶소주 한 고리.

(3) 구기

구기명

술이나 기름, 죽 따위를 풀 때에 쓰는 기구. 자루가 국자보다 짧고, 바닥이 오목하다.=작자²(작자). ¶구기로 술을 떠 주전자에 붓다/ 사발을 집어 들고 구기 잡은 사람에게로 내밀면서 “내게 먼저 부어 주게” 하고 말하였다. «홍명희, 임꺽정»

구기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술이나 기름, 죽 따위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기름 세 구기/ 석유 두 구기/ 호박죽 한 국. [구기<훈몽>]

(4) 국자

국자[㉠]

①국이나 액체 따위를 뜨는 데 쓰는 기구. 움푹 들어간 바닥에 긴 자루가 달렸다. =극비(棘匕). ㉠국자로 국을 뜨다/ 국자로 국물을 휘젓다/ 그네는 국자로 빈양푼에다 찢어 발긴 영계백숙을 나누어 퍼 담기 시작 했다. «김원일, 불의 제전»

국자[㉠]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이나 액체 따위를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국물 두 국자/ 우리는 국을 한 국자씩 떠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다.

(5) 그릇

그릇[㉠]

①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세는 단위는 개, 벌, 죽 따위가 있다. ㉠반찬 그릇/ 바느질 그릇/ 화장품 그릇/ 사기 그릇/ 플라스틱 그릇/ 그릇을 부시다/ 그릇을 비우다/ 그릇을 씻다/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다/ 식사 후 그릇을 치우다.

②어떤 일을 해 나갈 만한 능력이나 도량 또는 그런 능력이나 도량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릇이 크다/ 그 사람이 어디 그런큰일을 할 만한 그릇이나 됩니까?/ 천하를 경영하려는 황제의 그릇은 신기죽 같은 유생의 그릇과는 역시 달랐다.«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그릇[㉠]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이나 물건을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설렁탕 한 그릇을 시키다/ 그는 한 끼 식사로 밥을 두어 그릇을 먹는다./ 그는 결신들린 사람처럼 밥 두 그릇에 국 세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다.

(6) 다래끼

다래끼[㉠]

아가리가 좁고 바닥이 넓은 바구니. 대, 싸리, 칩덩굴 따위로 만든다. =요라(料蘿). ㉠고추를 따서 다래끼에 담았다.

다래끼[㉠]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옥수수 한 다래끼.

(7) 달구지

달구지[㉠]

①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 =마소수레. ㉠달구지 한 대/ 달구지를 끌다/ 달구지를 몰다/ 달구지에 짐을 싣다/ 아버지께서는 소에 달구지를 달고 장에 가셨다./ 이곳 사람들은 도리가 없어 읍내로 갈 땐 달구지를 타고 간다.

달구지^{단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짐 따위를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뱃단 두 달구지.

(8) 담불

담불[㉠]

곡식이나 나무를 높이 쌓아 놓는 무더기 ㉠곳간에 벼가 담불로 쌓여 있다.

담불^{단의}㉠

벼를 백 섬씩 묶어 세는 단위 ㉠ 벼 한 담불.

(9) 대접

대접[㉠]

①위가 넓적하고 운두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 국이나 물 따위를 담는 데 쓴다. ㉠ 사발과 대접/ 화덕에 올려놓았던 주전자의 보리차를 대접에 부어 손님 앞에 내놓았다.

대접^{단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이나 물 따위를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물 한 대접/ 막걸리 한 대접

(10) 동¹

동¹

①물건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동은 떡 열 장, 붓 열 자루, 생강 열 집, 피륙 50필, 백지 100권, 곳감 100집, 벗짚 100단, 조기 1,000마리, 비웃 2,000마리를 이른다.
②역] 논밭 넓이의 단위. 세금을 계산할 때 썼다. 한 동은 한 짐의 열배로, 그 넓이

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11) 동이

동이[㉠]

①질그릇의 하나. 흔히 물 길는 데 쓰는 것으로써 보통 둥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 ㉠ 머리 위에 따리를 얹고 동이를 이었다./ 동이에는 물이 반쯤 차있을 뿐, 오랜 장마로 흠내가 물씬거리는 부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수산, 유민»

동이[㉡]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 따위를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불과 칠팔 인밖에 안되는 식구지마는 한 광주리 밥과 한 동이 국, 한 동이 막걸리, 한 동이 송늬를 다 먹어 버리고 말았다. «이광수, 흙»/ 우물의 물은 날마다 더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 집에서 두 동이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다. «박화성, 한귀»

(12) 되

되[㉠]

①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 주로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다. ㉠ 되로 쌀을 되다/ 할머니는 작은 되로 걸보리를 퍼 담았다.

②되에 담은 양. ㉠ 되가 후하다/ 되가 인색하다/ 되를 잘 주다/ 되가 적으니 많으니 하고 누군 더 갔느니 덜 갔느니 하면 그 성화를 어떻게 받게. «이기영, 고향»

되[㉡]의[㉢]명

①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되 는 한 말의 10분의 1, 한 홉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당한다. =승²(升). ㉠ 쌀 한 되/ 막 거릴 한 되. 콩 너 되/ 보리 닷 되를 퍼 담다/ 쌀이 석 되가 축이 난다.

②(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약간의 그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곡식 되라도 얻으려고 애쓰다/ 글썽 독에 쌀 되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좁쌀 되나 팔고 나니 남는 돈이 없다.

(13) 말

말뿔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분량을 되는 데 쓰는 그릇. 열 되가 들어가게 나무나 쇠붙이를 이용하여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다. ㉠ 동네 부역이라는 게 흔히 그렇지만, 그날 따 낸 애벌레도 말로 되면 한 말 남짓 될까 했다. 《이문구, 으악 새 우는 사연》

말단(의)명

부피의 단위.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부피를 쟀 대 쓴다. 한 말은 한 되의 열 배로 약18리터에 해당한다. =두⁵(斗). ㉠ 쌀 두 말/ 보리 서 말.

(14) 모금

모금단(의)명

액체나 기체를 입 안에 한 번 머금은 분량을 세는 단위. ㉠ 물 한 모금/ 술을 한 모금 마시다/ 담배를 몇 모금 빨고 나서 경락이가 능청을 떠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15) 못

못뿔

고기잡이에 쓰는 커다란 작살.

못단(의)명

- ① 짚, 장작, 채소 따위의 작은 묶음을 세는 단위. ㉠ 빨감은 아예 말뿔, 소뿔을 말려 쓰고, 몇 못 안 남은 조짚은 마소를 먹였다.《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 ② 벧단을 세는 단위.
- ③ 생선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못은 생선 열 마리르 이른다. ㉠ 삼치 다섯 못.
- ④ 미역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못은 미역 열 장을 이른다.
- ⑤ [역] 세금을 계산할 때 쓰던, 논밭 넓이의 단위. 한 못은 한 줌의 열 배로, 그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16) 바가지

바가지뿔

① 박을 두 쪽으로 쪼개거나 또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데 쓰는 그릇. ㉠ 바가지로 물을 뜨다/ 어머니는 밥을 짓기 위해 바가지에 쌀을 담아 나가셨다./ 옷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가지

로 우거짓국을 퍼 담아 준다. 《유현종, 들불》

바가지^{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 따위의 액체나 곡식을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쌀 두 바가지/ 물 한 바가지. 재수가 좋으면 손가락만 한 고구마 이삭을 한 바가지나 모을 수도 있었다. 《이문열, 영웅 시대》

(17) 바구니

바구니^명

①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겹 둘러 손잡이로도 쓸 수 있다. ¶ 바구니에 나물을 담다/ 바구니를 끼고 시장에 가다/ 바구니에 과일을 가득 채우다/ 박문혜의 팔이 어떻게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넣은 저자 바구니를 들 수가 있겠는가.《이병주, 행복어 사전》

바구니^{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작은 물건을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과일 한 바구니.

(18) 벌

벌^명

옷이나 그릇 따위가 두 개 또는 여러개 모여 갖추는 덩어리. ¶ 옷을 벌로 맞추다.

벌^{단의명}

①옷을 세는 단위. ¶ 두루마기 한 벌/ 드레스 두 벌. ②옷이나 그릇 따위가 두 개 또는 여러 개 모여 갖추는 덩어리를 세는 단위. ¶ 바지저고리 한 벌/ 반상기 세 벌/ 공구 몇 벌/ 한편 구석에는 개어 놓은 이부자리가 서너 벌쯤 쌓여 있다.

(19) 보

보^{단의명}

응답이나 저담 따위를 세는 단위. ¶ 응답 한 보/ 저담 두 보를 구하다.

(20) 보시기

보시기뎡

①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은 반찬 그릇의 하나.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 ¶ 김치 보시기/ 보시기에 깍두기를 담다

보시기단의뎡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김치나 깍두기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나박김치 한 보시기.

(21) 삼태기

삼태기뎡

①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가는 싸리나 대오리, 칩, 짚, 새끼 따위로 만드는데 앞은 벌어지고 뒤는 우긋하며 좌우 양편은 울이 지게 엮어서 만든다. ¶ 아이들과 아낙네들은 삼태기에 자갈들을 담아다 부었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삼태기단의뎡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22) 삽

삽뎡

①땅을 파고 흙을 뜨는 데 쓰는 연장. ¶ 시멘트를 삽으로 개다/ 삽과 곡괭이로 구덩이를 파고 김장독을 묻었다.

삽단의뎡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흙이나 모래 따위를 ‘①’에 퍼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시멘트 두 삽/ 흙 한 삽/ 그는 부드러운 흙을 몇 삽 조심스럽게 뿌렸다. 《이원규, 훈장과 굴레》

(23) 새

새단의뎡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 한 새는 날실 여든 올이다. ¶넉 새 모시.

(24) 손

손단의명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조기, 고등어, 배추 따위 한 손은 큰 것과 작은 것을 합한 것을 이르고, 미나리나 파 따위 한 손은 한 줌 분량을 이른다. ¶고등어 한 손 / 모래 중리 장날에는 조기라도 한 손 사야겠다. 《김춘복, 삼짓골》

(25) 찜

찜단의명

①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찜은 바늘 스물네 개를 이른다. ¶바늘 세 찜. ②옷감, 피혁 따위를 알맞은 분량으로 짜 놓은 덩이를 세는 단위. ¶빨랫감 두 찜. ③금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한 찜은 금 백 냥쫘이다.

(26) 섬

섬명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 ¶보리를 섬에 가득 담다/부민들이 명석과 섬을 가져다 깔고 그 위에 가져다 깔고 그 위에 부상자들을 눕혔다. 《송기숙, 녹두 장군》

섬단의명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벼 한 섬을 지게에 지다 /군사들은 어백미 석 섬을 명석 위에 쏟아 부었다. 《박종화, 임진왜란》

(27) 숟가락

숟가락명

①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 은 · 백동 · 놋쇠 따위로 만들며, 생김새는 우묵하고 길 둥근 바닥에 자루가 달려 있다.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

숟가락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밥 따위의 음식물을 ‘①’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 ¶두어 숟가락/ 그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밥상을 물렸다.

(28) 술

술단의명

밥 따위의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밥 두어 술.

(29) 쌈지

쌈지명

①담배, 돈, 부시 따위를 싸서 가지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 가죽, 종이, 형겔 따위로 만든다. ¶ 쌈지에서 담배를 꺼내다/ 할아버지는 쌈지에서 꼬깃꼬깃 구겨 넣어 둔 천 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그는 때때로 동구의 사당 반석 위에다 목판을 내려놓고 쌈지를 풀어 누런 종지와 부싯돌을 꺼내면서... 《이동하, 우울한 귀향》

쌈지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담배나 바늘 따위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담배 한 쌈지/ 바늘 한 쌈지/ 부시 한 쌈지.

(30) 움큼

움큼단의명

손으로 한 줌 움켜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 아이가 사탕을 한 움큼 집었다. /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종식이 아내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된장을 손에다 한 움큼 쥐고 온다. 《김춘복, 쌈짓골》

(31) 입

입명

①입술에서 후두(喉頭)까지의 부분. 음식이나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를 내는 기관이다. ¶ 입이 크다/ 입을 벌리다/ 입을 다물다.

②=입술①. ¶ 입이 빨강다/ 손등에 입을 맞추다/ 입을 오므리다/ 입을 삐죽 내밀다/ 입이 부르트다.

③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효. ¶ 입을 덜다/ 입이 늘다/ 입이 하나 줄다/ 입이 몇인데 겨우 요걸 사 오냐.

④사람이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입이 걸다/ 그 사람은 입이 거칠다./ 저 사람은 입으로는 당해 낼 수가 없다.

입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을 세는 단위. ¶ 한 입만 먹어 보자./ 사과를 두세입 베어 먹다.

(32) 자루

자루명

①손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연장이나 기구 따위의 끝트에 달린 손잡이. ¶ 곡괭이 자루를 쥐다/ 호미 자루가 부러졌다./ 그는 자루 없는 낫과 괭이를 새끼에 묶어 들고 있었다. <박경리, 토지>

②연장이나 기구 따위의 손잡이처럼 생긴 부분을 이르는 말. ¶ 상투 자루.

자루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기름하게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무기 따위를 세는 단위. ¶ 연필 두 자루/ 총 한 자루/ 창 한 자루/ 호미 열 자루를 준비해라./ 그들의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도 무기는 없고 세 자루의 도끼와 배낭이 보였다. <이원규, 훈장과 굴레>/ 그는 가죽 주머니에서 칼을 한 자루 꺼내어 그리로 건주어 보았다. <김동인, 젊은 그들>

(33) 쟁기

쟁기단의명

쟁기고기를 세는 단위. 한 쟁기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여덟 덩이로 나누었을 때 그 한 덩이이다.

(34) 전

전명

갈퀴와 손으로 한 번에 꺾안을 정도의 땀나무의 양.

전단의명

땀나무를 갈퀴와 손으로 한 번에 꺾안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갈퀴나무 한 전을 해 오다.

(35) 접

접단의명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를 이른다. ㉠ 배추 두 접/ 마늘 한 접/ 감 두 접.

(36) 접시

접시[㉠]

①운두가 낮고 납작한 그릇. 반찬이나 과일, 떡 따위를 담는 데 쓴다. ㉠ 사기 접시/ 반찬 접시/ 반찬 접시/ 접시를 깨다/ 접시에 음식을 담다/ 흰 행주치마 입은 새댁은 벚나무의 버찌를 따서 서방님 드린다고 흰 접시에 담아서 푸른 그들이 드리운 마루방 찬장 위에 놓아두더니……. 《박경리, 시장과 전장》

②접시저울에서 무게를 달 물건을 올려놓는 판.

접시[㉠]단위[㉠]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이나 요리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떡 한 접시/ 과일 두 접시.

(37) 젓가락

젓가락[㉠]

음식을 집어 먹거나, 물건을 집는 데 쓰는 기구. 한 상의 가늘고 찝막한 나무나 쇠붙이 따위로 만든다. 젓가락 한 벌/ 젓가락 두 매/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탁 위에 놓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다/ 서양인은 푸딩 같은 것은 스푼이 아니면 떠 먹을 수 없지만, 동양인은 푸딩에 못지않게 부드러운 두부를 젓가락으로 집는다. 《조풍연, 청사 수필》

젓가락[㉠]단위[㉠]

(수량을 나타내는 말 위에 쓰여) 음식을 집어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라면 한 젓가락만 먹을게.

(38) 조짐

조짐[㉠]단위[㉠]

쪼갠 장작을 세는 단위. 한 조짐은 사방 여섯 자 부피로 쌓은 분량의 쪼갠 장작 더미를 이른다. ㉠ 장작 열 조짐.

(39) 종구라기

종구라기[㉠]

①조그마한 바가지. ¶ 그는 여자들을 품러 대며 종구라기로 술을 떠 마셨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종구라기^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이나 술 따위의 액체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막걸리 한 종구라기만 퍼 주세요.

(40) 종지

종지^명

①간장 · 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종발보다 작은 그릇. ¶ 양념장 종지/ 복연은 선반 위의 상을 내려서 재빨리 닦아 내고 간장 종지, 김치 보시기, 수저를 챙겨 놓는다. 《박경리, 토지》/ 그들은 일제히 도시락을 폈다. 어떤 아이는 콩보리밥에 새우젓 종지 하나가 구석에 쑤셔 박혀 있었고…. 《최일남, 숙부는 늑대》

종지^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간장이나 고추장 따위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간장 세 종지/ 큰 상에는 초간장 두 종지를 놓았다.

(41) 주먹

주먹^명

①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손. ¶ 주먹을 쥐다/ 주먹을 휘두르다/ 주먹 같은 눈물이 그녀의 뺨에서 흘러 내리기 시작했다./ 당숙모는 어른의 주먹 둘을 합쳐 놓은 것만 한 배를 깎고 있었다. 《한승원, 해일》

②물리적인 힘이나 폭력, 폭력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주먹 세계/ 주먹 싸움/ 주먹 자랑/ 주먹이 세다/ 주먹을 쓰다/ 이 영화는 주먹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먹^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손에 쥔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 사탕을 한 주먹 쥐다/ 나뭇짐에 한 주먹씩 따 엮어 가지고 돌아오는 머루가 벌써 맛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한수산, 유민》

(42) 지게

지계[㉠]

①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 기구. 두 개의 가지 돌힌 장나무를, 위는 좁고 아래는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그 사이를 사개로 가로질러 맞추고 아래위로 질빵을 걸었다. ¶ 지계를 벗다/ 지계를 지다/ 아버지는 지계를 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 나무를 지고 내려오던 아이들이 지계를 내려놓고 잠시 쉰다.

지계^{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이나 땀 따위를 ‘①’에 실어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지계 해 왔다./ 땀나무 하나 들여오고 물 한 지계 길게 하는 것까지도 더덜이가 없었다. <<송기숙, 녹두 장군>>

(43) 초롱

초롱[㉠]

①석유나 물 따위의 액체를 담는 데에 쓰는, 양철로 만든 통. ¶ 물 초롱/ 석유 초롱/ 물지게처럼 만든 초롱에 부대에서 먹고 버린 찌꺼기를 담아내다가 을생은 돼지를 길렀다. <<한수산, 유민>>

초롱^{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석유나 물 따위의 액체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물 한 초롱/ 준비해 둔 석유가 반 초롱쯤 남아 있었다. <<김성동, 만다라>>

(44) 줍

줍[㉠]

가늘고 기름한 물건을 한 손으로 절만한 분량. ¶ 줍이 크다/ 줍이 작다.

줍^{단의명}

가늘고 기름한 물건을 한 손으로 쥐어 세는 단위. ¶ 모 한 줍/ 미역 두 줍.

4) 무게

(1) 돈

돈[㉠]

①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예전에는 조가비,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따위를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금, 은, 동 따위의 금속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며 그 크기나 모양, 액수 따위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돈을 모으다/ 돈을 벌다/ 돈을 갚다/ 돈이 생기다/ 돈을 쓰다/ 돈을 세다/ 돈을 갚다/ 돈이 생기다 / 돈을 쓰다/ 돈을 세다/ 돈을 빌리다/ 그는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타면서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다/ 그런데 어떡하지? 용호 씨가 준 시계, 반지, 목걸이, 모두 하나도 가진게 없는데. 돈이 아쉬워서 팔았어. ((서영은, 슬래야 슬래야))

②물건의 값. ¶ 물건을 사고 돈을 치르다/ 책을 사고 돈을 지불하다.

③재물이나 재산. ¶ 돈이 많은 집안. 우리는 비록 돈이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넉넉한 부자이다.

④무엇을 하는 데 드는 비용. ¶ 집을 수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싶다.

돈단의명

①무게의 단위. 귀금속이나 한약재 따위의 무게를 잴 때 쓴다. 한 돈은 한 냥의 10분의 1, 한 푼의 열 배로 3.75그램에 해당한다. ¶ 금 두 냥 서 돈/ 감초 너 돈.

②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 한 돈은 한 냥의 10분의 1이고 한 푼의 열 배이다. ¶ 다섯 냥 두 돈 서 푼.

(2) 보지락

보지락단의명

비가 온 양을 나타내는 단위. 보습이 들어갈 만큼 빗물이 땅에 스며든 정도를 이른다. ¶ 비가 한 보지락 시원하게 내렸다.

5) 액수

(1) 원

원단의명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 1원은 1전의 100배이다. 196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호는 ₩. ¶용돈으로 만 원을 받다 / 천 원으로 과자를 사 먹었다.

(2) 푼

푼단의명

①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 한푼은 돈 한 냇을 이른다. ¶그는 몇 년간 이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지만 새경은커녕 엽전 한 푼 받아 본 적이 없었다. ②돈을 세는 단위. 스스로 적은 액수라고 여길 때 쓴다. ¶나는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다. / 없다는 것보다 돈이 많다 하니 듣기는 좋다마는 그까짓 코 묻은 돈 몇 푼, 가소롭다 가소로워. 《박경리, 토지》 ③비율을 나타내는 단위. 1푼은 전체 수량의 100분의 1로, 1할의 10분의 1이다. ¶삼 할 오 푼의 높은 타올 / 장사도 신식으로다 해야 이문도 몇 푼 몇 리까지 깔축이 없고 편리하다는 거야. 《박완서, 미망》 ④길이의 단위. 한 푼은 한 치의 10분의 1로, 약 0.33cm에 해당한다. ⑤무게의 단위. 귀금속이나 한약재 따위의 무게를 잴 때 쓴다. 한 푼은 한 돈의 10분의 1로, 약 0.375그램에 해당한다. ¶무게를 달아 보니 이금은 한 돈에서 일 푼이 모자란다.

6) 시간

(1) 가지

가지단의명

②제기차기에서, 제기를 차기 시작해서 땅에 떨어뜨리기까지의 동안을 세는 단위. ¶한 가지에 몇 번이나 찼니?

(2) 날

날의명

①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야. 자정에서 다음 자정까지의 동안으로 24시간이다. ¶어느 날/ 마지막 날/ 기분 좋은 날. 어머니는 자식들 걱정애 눈물 마를 날이 없다./ 모처럼 쉬는 날 반갑잖은 손님이 들이닥쳤다./ 우연히도 두 사람이 같은 날 태어나서 같은 날 죽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우정은 깊어만 갔다./ 지금은 야속해도 언젠가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②하루 중 환한 동안. ¶날이 밝다/ 날이 새다/ 날이 저물다/날이 새면서 주위가 밝아 온다.

③=날씨. ¶날이 좋다/날이 개다/ 날이 따듯하다/ 날이 가물다.

④=날짜¹②. ¶날을 정하다/ 언제 날을 정해서 술 한잔 합시다.

⑤어떠한 시절이나 때. ¶화려했던 날의 추억/ 영광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젊은 날 술한 밤을 책과 더불어 지새웠다.

⑥(‘날에는’, ‘날이면’ 꼴로 쓰여)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 일이 들통나는 나랭은 큰 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입학시험에 떨어지는 날이면 곧바

로 군대를 가야 한다. [날<용가>]

날단의명

《일부 고유어 수 뒤에 쓰여》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동안을 세는 단위. ¶서울까지 걸어서 스무 날이 걸렸다.

(3) 달

달명

① [천] 지구의 위성(衛星). 햇빛을 반사하여 밤에 밝은 빛을 낸다. 표면에 많은 분화구가 있으며 대기는 없다. 공전 주기는 27.32일, 반지름은 1,738km이다. =월구(月球). ¶달이 뜨다/ 달이 지다/ 밤이 되자 둥근 달이 두둥실 떠 올랐다.

②=달빛. ¶달이 밝다

③한 해를 열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의 기간. 한 달은 양력으로는 30일 또는 31일이고, 음력으로는 29일 또는 30일이다. ¶이번 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확답을 하겠다./ 정월 초에 시작했던 공사가 같은 달 20일에 끝났다.

달단의명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한 해를 열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의 기간을 세는 단위. ¶한 달/ 두 달/ 그 사람이 떠난 지 다섯 달이 다 되었다./ 몇 달 동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4) 물

물단의명

①옷을 한 번 빨래할 동안. ¶한 물 빨다. ②농산물이나 해산물 따위가 얼마 동안의 사이를 두고 한 목씩 무리로 나올 때의 차례. ③알에서 갓 깬 어린누에를 잠란지(蠶卵紙)에서 그러모아 다른 종지로 옮기는 차례. ④바다에 친 그물을 추어올려서 한 차례씩 물고기를 잡아내는 일. ¶막마 물에 잡은 정어리 《선대》/명태 한 물에 다섯 톤씩 잡다. 《선대》

(5) 살

살단의명

나이를 세는 단위. ¶두 살 먹은 꼬마/ 큰놈이 여섯 살 때 들어와서 지금 아홉 살,

초등학교 이 학년이다. 《엽상섭, 동서》

(6) 해

해단의명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을 세는 단위.
¶한 해를 보내다/ 몇 해가 걸리든지 부디 대공만 이루세요. 《현진건, 무영탑》

7) 동물

(1) 갯

갯단의명

굴비, 비웃 따위나 고비, 고사리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갯은 굴비·비웃 따위 열 마리, 또는 고비·고사리 따위 열모숨을 한 줄로 엮은 것을 이른다. ¶굴비 열갯/ 고사리 두 갯.

(2) 마리

마리단의명

①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소 한 마리/ 새 두 마리/ 고등어 두 마리/ 모기 다섯 마리. ②《동물의 이름과 함께 쓰여》 ‘약간의 그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소 마리나 기르느냐?/ 고기 마리나 잡았나?

(3) 병

병단의명

사냥에서, 매를 세는 단위. ¶매 한 병.

(4) 축

축단의명

①오징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축은 오징어 스무 마리를 이른다. ②일정한 횟수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 ¶앞마을에서 골짜기치기까지 들어가자면 15리가 거진 되는 곳을 흥령감은 벌써 두 축이나 오르내리었다. 《선대》/네 축이나 메질을 하여 늘쿠고 다음부터는 학춘이 혼자서 모를 죽이고 날을 세워 나갔다. 《1932년, 선대》

(5) 쾌

쾌^단의^명

① 북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쾌는 북어 스무 마리를 이른다. ¶ 북어 한 쾌. ② 예전에, 엽전을 묶어 세던 단위. 한 쾌는 엽전 열 냇을 이른다. ¶ 엽전 두 쾌.

8) 식물

(1) 강다리

강다리 ^명

① 물건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어긋맞게 괴는 나무. ¶ 강다리를 괴다. ② [건]도리 바깥 쪽으로 내민 추녀 끝의 처짐을 막기 위하여 추녀의 안쪽 위 끝에 비녀장을 꽂은 단단한 나무.

강다리^단의^명

쪼갠 장작을 묶어 세는 단위. 한 강다리는 쪼갠 장작 백 개비를 이른다. ¶ 장작 한 강다리.

(2) 거리¹

거리¹의^명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오십 개를 이른다. ¶ 가지 두 거리/ 오이 세 거리.

(3) 그루

그루^단의^명

① 식물, 특히 나무를 세는 단위. =주²⁴ (株). ¶ 소나무 2천 그루/정원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 집 뒤 동산에는 밤나무가 몇 그루 듬성듬성 서 있다. ② 한 해에 같은 땅에 농사짓는 횟수를 세는 단위. ¶ 이곳은 일조량이 많아서 논농사도 두 그루 심는다.

9) 장소

(1) 군데

군데^단의^명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 ¶한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이 글은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그의 팔목과 다리에는 부스럼이 여러 군데 끓어 있었으며... 《황석영, 탐》 /출입구는 두 군데, 앞쪽에 큰 문이 있고 공터 쪽으로 셋문이 있습니다. 《황석영, 무기의 그늘》

(2) 채

채^단의^명

①집을 세는 단위. ¶기와집 몇 채/ 오막살이 한 채/ 우리는 오두막이 네댓 채 띄엄띄엄 있는 곳으로 갔다. / 큰 집 서너 채 폭이나 되는 돌산이 오봉산 부리에서 우뚝 솟았다. 《이무영, 농민》 ②큰 기구, 기물, 가구 따위를 세는 단위. ¶가마 두 채/ 상여 한 채/ 마차 세 채/ 장롱 한 채. ③이불을 세는 단위. ¶햇솜을 넣어 만든 두터운 솜이불 한 채. ④가공하지 아니한 인삼을 묶어 세는 단위. ¶인삼 한 채 / 두 채의 인삼.

10) 횃수

(1) 거리²

거리²단^의명

①[민]탈놀음, 꼭두각시놀음, 굿 따위에서, 장(場)을 세는 단위. ¶한 거리 놀다/ 굿은 점심 전 세 거리, 점심 후 일곱 거리 모두 열 거리를 마치고 앞으로 두 거리가 남은 것을 저녁들 먹고 마저 하기로 되어서... 《홍명희, 임궫정》 ②[음]음악, 연극 따위에서 단락, 과장, 마당을 이르는 말. ¶첫째 거리.

(2) 대

대^명

①초본 식물의 줄기. ¶ 이 대를 봐. 옥수수가 정말 실하게 잘 자랐지?
②가늘고 긴 막대. ¶ 대가 부러지다/ 대가 휘다
③마음 씩씩이나 의지. ¶ 여자가 워낙 대가 세어서 남편이 꿈쩍 못한다더라./ 젊은이가 대가 약하군./ 그 문은 대가 곧은 학자시다./ 앓은뱅이네 식구는 폼추네 식구들보다 대가 약했다. ((조세희, 피비우스의 띠))
④=담뱃대.
⑤ [음] 음표의 머리에서 위아래로 붙는 수직선.

대단의명

- ①담배통에 채워 넣는 담배의 분량이나 담배를 피우는 횟수를 세는 단위. ¶ 담배 한 대 먼저 채우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담배나 한 대 더 피우고 들어가라.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 ②때리는 횟수를 세는 단위. ¶ 회초리로 몇 대 맞을래?/ 알밤을 한 대 맞았다.
- ③주사를 놓는 횟수를 세는 단위. ¶ 엉덩이에 주사를 한 대 맞다./ 간호사는 나에게 진정제인 듯한 주사를 한 대 놓아 주었다.

(3) 돌

돌명

어린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 ¶ 내일이 조카 돌이다.

돌단의명

- ①생일이 돌아온 횟수를 세는 단위. 주로 두세 살의 어린아이에게 쓴다. ¶우리 아이는 이제 겨우 두 돌이 넘었다.
- ②특정한 날이 해마다 돌아올 때, 그 횟수를 세는 단위. ¶서울을 수도로 정한 지 올해로 600돌이 되었다.[<뚝<내훈>]

(4) 동¹

동¹명

굵게 묶어서 한 덩이로 만든 묶음. ¶ 나무를 동으로 묶다/ 꼴을 베어 동을 짓다.

동¹단의명

[운] 옷놀이에서, 말이 첫 밭에서 끝 밭을 거쳐 나가는 한 차례를 세는 단위.

(5) 물

물명

- ①자연계의 강, 호수, 바다, 지하수 따위의 형태로 널리 분포하는 액체. 순수한 것은 빛깔, 냄새, 맛이 없고 투명하다.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로, 어느 점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고 끓는점 이상에서는 수증기가 된다. 공기와 더불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다. ¶ 물 한 모금/물로 입을 안을 행구다/ 물을 길다/ 물을 마시다/ 물을 붓다/ 물을 뿌리다/ 물을 엮지르다 / 물이 퐁퐁 열다/ 물이 맑다/ 무릉르 두 잔이나 들이켰다/ 그는 물 묻은 손을

바지에 쓱쓱 문질렀다.

② 못, 내, 호수, 강, 바다 따위를 두루 이르는 말. ㉠ 물에 빠지다/ 물고기들이 물에서 헤엄친다./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물을 건넜다./ 여긴 수물 지구죠. 이 물 밑에 마을 이 있었어요. 《황석영, 섬섬옥수》

③ ‘조수⁸(潮水)’를 달리는 달리 이르는 말. ㉠ 물이 오르다/ 물이 빠지다/ 그이는 물이 빠진 다음에 일당을 받고 바닥에 들어가서 물고기 건지는 꽤거리에 끼어들 작정이었다. 《윤홍길, 완장》

④ 음료수나 술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내 비록 물 팔아 먹고 살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⑤ (일부 명사 뒤에 쓰여) (‘들다’, ‘먹다’와 함께 쓰여) 그곳에서의 경험이나 영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회 물을 먹어야 세상살이를 좀 알게 될 것이다./ 서울에 나가 몇 년 살더니 동생은 서울 물이 들어 아주 멋쟁이가 되었다./ 그는 외국 물 좀 먹더니 말씨가 달라졌다./ 넌 도시 출신이라 농촌 물을 좀 먹어 봐야 그곳 사정을 이해할 거야.

물뎡

물감이 물건에 묻어서 드러나는 빛깔. ㉠ 물이 굵다. 물이 바래다/ 물이 빠지다 / 옷감에 물을 들이다/ 옷을 훤히 벗어 꼭 쥐어짜면, 물에 행귀 낸 빨래처럼 진주홍 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물단의뎡

① 옷을 한 번 빨래할 동안. ㉠ 한 물 빨다. ② 농산물이나 해산물 따위가 얼마 동안의 사이를 두고 한 목씩 무리로 나올 때의 차례. ③ 알에서 갓 깬 어린누에를 잠란지(蠶卵紙)에서 그러모아 다른 종지로 옮기는 차례. ④ 바다에 친 그물을 추어올려서 한 차례씩 물고기를 잡아내는 일. ㉠ 막마 물에 잡은 정어리 《선대》 / 명태 한 물에 다섯 톤씩 잡다. 《선대》

(6) 배

배뎡

① [의]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 배가 나오다/ 배가 아프다/ 배에 힘을 주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점심을 먹지 못해 배가 많이 고팠다./ 그는 배를 깔고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 배가 쓰린 것이 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탁자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한수산, 부초》

② [동] 절족동물, 특히 곤충에서 머리와 가슴이 나니 부분. 여러 마디로 되어 있으며 숨구멍, 항문 따위가 있다.

③긴 물건 가운데의 불룩한 부분. ¶ 배가 불룩한 돌 기둥/ 아버지는 삼촌이 가져온 자루를 어깨에 메었다. 옥수수 가루와 감자가 삼분의 이쯤 차 배가 부른 마대 자루였다. <김원일, 노을>

④ [의] 아이가 드는 여성의 태내(胎內). ¶ 임신 후 오개월부터는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왔다./ 뒷박 엮어 놓은 것같이 배가 불쑥 솟으면 딸이고, 허리까지 등글게 배가 부르면 아들이랍디다. <홍명희, 임걱정>

⑤ [물] 정상 진동이나 정상과에서 진폭이 가장 큰 부분.

배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는 횟수를 세는 단위. ¶ 그 돼지는 1년에 두 배나 새끼를 낳았는데, 한 배마다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7) 바퀴

바퀴

돌리거나 굴리려고 테 모양으로 등글게 만든 물건. ¶ 자동차 바퀴/ 바퀴가 달리다/ 차는 성난 말같이 코를 불며 무거운 바퀴를 천천히 움직인다. <이기영, 고향>

바퀴단의명

어떤 돌레를 빙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횟수를 세는 단위. ¶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세 바퀴 돌았다./ 어머니와 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과일 집을 여러 군데 발견했다.

(8) 켜

켜단의명

노름하는 횟수를 세는 단위. ¶ 화투 한 켜/ 내기 바둑을 두어 켜 두고 나니까 머리가 아프다.

(9) 회

회

새장이나 닭장 속에 새나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막대. ¶ 닭이 회에 올라 앉다/ 구구거리며 저녁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닭들이 다 회에 오르고 나면 집 안은 갑자기 깊은 정적에 빠진다. <한수산, 유민>

훼단의뎡

새벽에 닭이 올라앉은 나무 막대를 치면서 우는 차례를 세는 단위. ㉠ 닭이 세
훼 올라/ 삼경이 지나 닭이 한 훼 올 때쯤에, 그는 잠이 깨었다.

11) 거리

(1) 마장

마장단의뎡

거리의 단위. 오 리나 십 리가 못 되는 거리를 이른다. ㉠한 마장/ 일 마장/ 동쪽 줄
기를 따라 하산하여 세 마장 정도 들을 질러가면 사철 철새 때의 울음이 끊이지 않
는 낙동강 하류 삼각주에 도달할 수 있었다. 《김원일, 불의 제전》/이미 식구들은
한 마장도 넘게 창경원 돌담을 끼고 도망치고 있었다. 《최인호, 지구인》

12) 무생물

(1) 가래

가래뎡

①떡이나 엇 따위를 둥글고 길게 늘여 만든 토막.

②(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토막 낸 떡이나 엇 따위를 세는 단위. ㉠떡
두 가래. 예전에는 현 고무신 몇 짝만 있어도 엇 서너 가래와 바꿔 먹을 수 있
었어.

③(주로 ‘떡’, ‘엇’ 따위의 뒤에 쓰여) 약간의 그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가마

가마단의뎡

=가마니 ㉠쌀 다섯 가마/ 쌀을 가마니에 담으니 한 가마가 넘는다./ 너는 요즘
쌀 한 가마가 얼마인지 아니?

(3) 가마니

가마니뎡

①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을 돛자리 치듯이 쳐서 만든 용기. 요
즈음에는 비닐이나 종이 따위로 만든 큰 부대를 이르기도 한다. ㉠예전에는 농
한기인 겨울에 짚으로 가마니를 짜는 농가가 많았다./ 이 쌀을 다 담으려면 가
마니가 열 장은 있어야 되겠다./ 운수가 방문을 필쩍 열고 들어서니 김선여 내
외는 지금 한창 가마니를 치고 있다가 시선을 이편으로 돌린다. «이기영, 신개

지»

가마니^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우리 집은 일 년에 쌀을 두 가마니 정도 먹는다./ 이 정도 크기의 논에서는 일년에 쌀을 몇 가마니나 수확할 수 있습니까?』

(4) 거리¹

거리¹의^명

①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 내용이 될 만한 재료. 『국거리/논문거리/반찬거리/비웃음거리/일거리/이야깃거리/여기, 마실 거리 좀 나오너라./이 주제는 충분히 토의할 거리가 된다./노안기라서 일할 거리가 적다./친구 덕을 좀 보기로서니 뭐 그리 구애될 거리가 되느냐는 태도로 형남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서기원, 암사지도》 ② 《주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제시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일을 종일 하고 있구나. ③ 《주로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제시한 수가 처리할 만한 것. 『그 과일은 한 입 거리밖에 안 된다./ 그 일은 한 사람 거리의 일이다.』

(5) 거리²

거리²의^명

① [민]탈놀음, 꼭두각시놀음, 굿 따위에서, 장(場)을 세는 단위. 『한 거리 놀다/ 굿은 점심 전 세 거리, 점심 후 일곱 거리 모두 열 거리를 마치고 앞으로 두 거리가 남은 것을 저녁들 먹고 마저 하기로 되어서... 《홍명희, 임궏정》 ② [음]음악, 연극 따위에서 단락, 과장, 마당을 이르는 말. 『첫째 거리.』

(6) 괴

괴^단의^명

창호지를 세는 단위. 한 괴는 2천 장이다.

(7) 동무니

동무니^단의^명

웃놀이에서, 한 개의 말에 어우른 동을 세는 단위.

(8) 매¹

매¹단의명

맷고기나 살담배를 작게 갈라 동여매어 놓고 팔 때, 그 덩어리나 매어 놓은 묶음을 세는 단위. ¶쇠고기 한 매만 사 오너라./ 살담배 두 매만 주시오.

(9) 매²

매²단의명

젓가락 한 쌍을 세는 단위. ¶젓가락 한 매.

(10) 모¹

모¹단의명

모시실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모는 모시실 열 을을 이른다.

(11) 모²

모²단의명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세는 단위. ¶숟가락 한 모.

(12) 벌¹

벌¹단의명

상투를 짤 때에 고를 돌려 감는 가닥을 세는 단위.

(13) 벌²

벌²단의명

같은 일을 거듭해서 할 때에 거듭되는 일의 하나를 세는 단위. ¶김을 세 벌 매다/ 소독을 세 벌이나 하다.

(14) 우리

우리단의명

기와를 세는 단위. 한 우리는 기와 2천장이다.

(15) 장

장단의명

무덤을 세는 단위.

(16) 줌

줌단의명

[역] 논밭 넓이의 단위. 세금을 계산 할 때 써다. 한 줌은 1뭇의 10분의 1로, 그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파²(把).

(17) 짝

짝단의명

①소나 돼지 따위의 한쪽 갈비 여러 대를 묶어 세는 단위. ¶갈비 한 짝. ②상자, 짐짝 따위를 세는 단위. ¶사과 한 짝/ 짐 두 짝. ③소나 말에 지운 한 바리의 짐 가운데 한쪽 편을 세는 단위. ¶소바리 세 짝. ④북어나 명태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짝은 북어나 명태 600마리를 이른다. ⑤소나 말 따위를 세는 단위.

(18) 쪽

쪽단의명

쪼개진 물건의 부분을 세는 단위. ¶손님이 오셨는데 사과 몇 쪽이라도 가져오너라. /마늘 한 톨은 대개 여섯 쪽이다. / 그는 토스트 한 쪽을 남긴 채 주스컵을 비우고서 식사를 끝냈다. 《이상문, 황색인》

(19) 집

집의명

①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 집을 짓다/ 집을 수리하다/ 집 한 채를 마련하다/ 우리 집은 마포에 있다./ 음식은 나가서 먹어도 잠은 꼭 집에서 자도록 해라./ 제비가 처마 끝에 집을 지었다./ 어머니 혼자 집을 지키고 계신다./ 우리는 폭격으로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우고 서울로 떠났다./ 장에 갔다 올 테니까 동생이랑 집 보고 있어라.
②가정을 이루고 생활 하는 집안. ¶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집이 그리워진다./ 그녀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 그는 열 일곱에 집을 나와 독립했다./ 그는 집을 전연 돌보지 않는다./ 청소년 여러분, 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③칼, 벼루, 총 따위를 끼거나 담아 둘 수 있게 만든 것. ¶ 칼을 잘 닦은 후 집에 넣어 보관해라.

④ [운] 화투나 마작 따위의 놀이에서 어느 한편을 이르는 말. ¶ 이번 판은 저 집에서 이길 것 같다.

⑤ [운] 바둑에서, 자기 돌로 에워싸 상대방 돌이 들어올 수 없게 한, 바둑판의 빈 자리. ¶ 집을 만든다.

⑥(‘우리 집에서’, ‘집에서’ 꼴로 쓰여)=집사람①. ¶ 이따가 우리 집에서 전화 오면 5시 이후에 다시 걸라고 전해 주세요요.

집단의명

①(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의 수효를 세는 단위. ¶ 세 집 건너 외가가 있다.

② [운]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바둑에서, 자기 돌로 에워싸 상대방 돌이 들어올 수 없게 한 빈 자리를 세는 단위. ¶ 한 집 차이로 승부가 갈라졌다.

(20) 켜

켜뎡

①포개어진 물건의 하나한의 층. ¶ 켜를 지은 시루떡/ 여러 켜를 쌓다/ 떡 켜를 두겹게 안치다/ 상육이 그 조 원장을 두고 외로워 보이더라도 말을 한 것은 조 원장의 분위기에 어린 그런 세월의 켜에서 연유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켜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포개어진 물건 하나하나의 층을 세는 단위. ¶ 창고에는 옷감들이 여러 켜로 쌓여 있었다.

(21) 켈레

켈레단의명

신, 양말, 버선, 방망이 따위의 짝이 되는 두 개를 한 벌로 세는 단위. ¶ 구두 한 켈레/ 버선 두 켈레/ 가죽 장갑 한 켈레/ 식구가 모여 있는지 댕돌 위에는 여러 켈레의 고무신이 놓여 있었다. <<김원일, 불의 제전>>/ 우리는 두 켈레의 군화를 반짝반짝 광채가 나도록 닦아 놓았다. <<김용성, 도둑 일기>>

(22) 테

테^단의^명

서려 놓은 실의 묶음을 세는 단위. ㉠ 실 두 테.

(23) 툇

툇^단의^명

밤이나 곡식의 낱알 세는 단위. ㉠ 밤 한 툇/ 밤 한 툇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먹다/ 태임이 역시 부잣집에 태어나 여태껏 부자 소리 들으며 살아왔지만 쌀 한 툇 동전 한 닢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 있었다. < 박완서, 미망 >/ 친정 온 딸에게 긴요하지도 않은 깨를 덩석 퍼 주고 보니 정작 자기네 한테는 양념 깨 한 툇이 남지 않게 되었다. < 박경리, 토지 >/ 곡식 한 툇이라도 허술히 잃지 않으면 티끌 모아 태산 된다고... < 김원일, 불의 제전 >

(24) 판

판^명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 ㉠ 판을 깨다/ 판이 벌어지다/ 판에 끼어들다.

판^단의^명

① ‘처지’, ‘판국’,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사람이 죽고 사는 판에 너는 편하게 앉아 있니? / 그 앞에서 대들었다간 몰매를 맞을 판이다. ②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 ㉠ 씨름 한판/ 마지막 판/ 바둑 한 판 둘래? / 그와 나는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③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그 명사가 나타내는 대상이 많음을 이르는 말.

(25) 활

활^단의^명

뚝을 세는 단위. ㉠ 뚝 세 활을 단 배.

2. 한자어계

1) 길이

(1) 경¹(更)

경¹(更)^단의^명

중국에서 쓰는 항해 거리의 단위. 1경은 60리에 해당한다.

(2) 마(碼)

마(碼)단의명

=야드. ¶ 다섯 마 세 치.

(3) 모(毛)

모(毛)단의명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 1모는 전체 수량은 10,000분의 1로 1리의 10분의 1이다.

(4) 문(文)

문(文)명

[민] 칠사(七祀)의 하나. 출입을 주관하는 궁중의 작은 신을 이른다.

문(文)단의명

①길이의 단위. 신발의 크기를 잴 때 쓴다. 1문은 약 2.4cm에 해당한다. ¶십 문 반 짜리 운동화. ②조선 시대에, 상평통보를 세던 단위. ③조선 시대의 화폐 단위. 1문은 1푼에 해당하였다.

(5) 장²(丈)

장²(丈)단의명

①길이의 단위. 한 장은 한 자(尺)의 열 배로 약 3미터에 해당한다. ¶선운사 도솔암 남쪽에 오십여 장 가량 되는 충암절벽이 있고, 그 절벽의 바위 전면에 마애불상이 있었다. 《문순태, 타고르는 강》 ②《한자어 수 뒤에 쓰여》 길이의 단위. 1장은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이다.

(6) 정¹(町)

정¹(町)단의명

①거리의 단위. 1정은 1간(間)의 60배로 약 109미터이다.
②땅 넓이의 단위. 1정은 1단(段)의 10배, 곧 3,000평으로 약 9.917.4m²이다.

(7) 지¹(指)

지(指)단의명

(한자어 수 뒤에 쓰여) ①‘손가락’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삼 지/ 제사 지/ 제 오 지.

②붕어 따위의 길이를 재는 단위. ¶ 사 지짜리 붕어.

(8) 척(尺)

척(尺) 단의명

길이의 단위. 한 자는 찬 치의 열 배로 약30.3cm에 해당한다. ¶ 그 집 안방은 창문에서 창문까지 이십오 척 너비다./ 두어 달 전에 판쇠가 그가 살던 마을에 가서 데려온, 종답지 않게 육 척 장신에 얼굴이 제법 귀공자처럼 허여멀쭉한 김치근이가 잠자코 있다가 한마디 했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9) 필¹(尺)

필¹(尺)단의명

일정한 길이로 말아 놓은 피륙을 세는 단위. ¶예물 단자를 적어 보면 황 모시 열 필, 흰 모시 스무 필, 검은 마포 열 필, 면주 스무 필... 《박종화, 임진왜란》

(10) 호(豪)

호(豪)단의명

①=모(毛)

②길이의 단위. 1호는 1리(釐)의 10분의 1로 약 0.333mm에 해당한다.

2) 넓이

(1) 경²(頃)

경²(頃)단의명

①=정보⁵(町步). ②예전에, 중국에서 쓰던 논밭 넓이의 단위. 1경은 100묘로, 그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2) 단(段)

단(段)단의명

①땅 넓이의 단위. 한 단은 한 정(町)의 10분의 1, 한 무(畝)의 열 배, 곧 300평으로 약 991.74m²에 해당한다.

②자동차 따위의 변속 단계를 나타내는 단위. ¶ 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기어를 1단에 넣어라.

(3) 단보(段步)

단보(段步)단의명

땅 넓이의 단위. 단(段)으로 끝나고 우수리가 없을 때 쓴다. 1단보는 남한에서는 300평으로 991.74m²에 해당한다. ¶ 그는 마을 뒷산 5단보의 땅에 백백이 유실수를 심었다.

(4) 두락(斗落)

두락(斗落)단의명

=마지기. ¶ 논 백 두락/ 밭 이백 두락/ 그가 그동안에 호리씨한테 돈을 갖다가 농사꾼들한테 고려를 놓고 저당 문서를 가져다 준 것만도 수백 두락이 될 것이었다. <문순대, 타오르는 강>/ 그때 숙부의 손으로 재산 정리를 하고 보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몇 두락의 전답하고 들어 있는 집 한 채뿐이었다.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5) 마지기

마지기단의명

①논밭 넓이의 단위. 한 마지기는 별씨 한 말의 몸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300평, 밭은 약 100평 정도이다. ¶논 다섯 마지기/ 아버지는 나에게 문전옥답 두 마지기를 유산으로 주셨다./ 그는 백 마지기가 넘게 농사를 짓는 부자였다.

② <‘논’이나 ‘밭’ 따위의 뒤에 쓰여> 약간의 그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그는 밭 마지거나 가지고 있다.

(6) 무(畝)

무(畝)단의명

논밭 넓이의 단위. 1무는 한 단(段)의 10분의 1. 곧 30평으로 약99.174m²에 해당한다.

(7) 정보(町步)

정보(町步)단의명

땅 넓이의 단위. 정(町)으로 끝나고 우수리가 없을 때 쓴다. 1정보는 3,000평으로 약9,917.5m²에 해당한다. ¶ 논 10정보/ 소작농에게 삼 정보씩 나누어 주다/ 뒤 강의 넓은 진펄이 서북으로 뚫려서 읍내 앞까지 돌아 나간 언저리는 무려 백 정보나 될 터 인데...《이기영, 신개지》

(8) 평(坪)

평(坪)단의명

①땅 넓이의 단위. 한 평은 여섯 자 제곱으로 3.3058m²에 해당한다. ¶ 백 평도 못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삼백 명 됩니다. 《백도기, 청동의 뱀》/ 그는 불과 반 평도 못 되는 좁은 면적에서 가까스로 자리를 잡고 서서 벽에 비스듬히 등을 기대었다.《송영, 선생과 황태자》

②부피의 단위. 흙이나 모래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평은 여섯 자 세제곱으로 6.013m³에 해당한다.

③형겘, 유리, 타일 따위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 한 평은 한 자 제곱이다.

④조각, 동판 따위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 한 평은 한 자 제곱이다.

3) 부피

(1) 곤(梱)

곤(梱)단의명

포장한 화물, 특히 생사(生絲)나 견사(絹紗)의 개수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생사는 아홉 관을 상자에 넣으며, 견사는 사백 파운드를 마포(麻布)로 싸서 철사로 동여맨다.

(2) 관(貫)

관(貫)단의명

한 사람이 낚은 열 마리의 고기.

(3) 공기(空器)

공기(空器)명

①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그릇. ‘빈 그릇’으로 순화.

②위가 넓게 벌어지고 밑이 좁은 작은 그릇. 주로 밥을 담아 먹는 데에 쓴다.

공기(空器)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밥 따위를 ‘㉔’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얼마나 굵주렸던지 그는 밥 세 공기를 단숨에 먹어 치웠다./ 쌀을 한 공기씩 가져오기로 하였다.

(4) 기(器)

기(器)단의명

음식을 그릇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5) 두(斗)

두(斗)단의명

부피의 단위.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말은 한 되의 열 배로 약18리터에 해당한다. =두⁵(斗). ¶ 쌀 두 말/ 보리 서 말.

(6) 립(立)

립(立)단의명

목재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두께나 너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7) 매(枚)

매(枚)단의명

①종이나 널빤지 따위를 세는 단위. ‘장’으로 순화. ¶ 200자 원고지 백 매를 썼다./ 복사지 삼십 매만 가져오너라.

②한방에서, 열매를 세는 단위.

(8) 목기(木器)

목기(木器)명

①나무로 만든 그릇. ‘나무 그릇’으로 순화. ¶ 목기를 깎아 만들다/목기에 밤을 쏟아 놓다.

목기(木器)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떡이나 두부 따위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떡 한 목기/ 두부 다섯 목기.

(9) 목판(木板)

목판(木板)㉠

①음식을 담아 나르는 나무 그릇. 모양이 여러 가지이나 보통 얇은 널빤지로 바닥을 대보 조붓한전을 엇비슷하게 사방으로 대었으며 정사각형이다. =목반(木盤) ¶ 저녁 먹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모가 삶은 밤을 목판에 가득 담아 들여왔다. <<한무숙, 만남>>/ 빼빼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목판을 이고 다니면서 목 장사, 떡 장사, 과일 장사, 콩나물 장사 안 해 본 것이 없 이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었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목판(木板)㉡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 따위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떡 한 목판.

(10) 배(杯)

배(杯)㉡의㉢

술이나 음료를 담은 잔을 세는 단위. ¶ 술 삼 배.

(11) 병(瓶)

병(瓶)㉠

①주로 액체나 가루를 담은 데에 쓰는 목과 아가리가 좁은 그릇. ¶ 목이 기 다란 병/ 병이 깨지다/ 어머니는 보리차를 병에 부어 냉장고에 넣었다./ 그는 아내한테서 병에 든 술과 달걀 한 꾸러미를 받아 들고 집을 나섰다./ 나는 고 추장, 간장, 여러 가지 양념을 작은 병에 담아 주었다. <<박완서, 도시의 흥년>>

병(瓶)㉡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액체나 가루 따위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물 한 병/ 콜라 네 병/ 주량이 소주 세 병이다.

(12) 봉(封)

봉(封)㉠

- ①종이로 싸 물건의 덩이.
- ②물건 속에 따로 싸서 넣은 물건. ¶ 봉을 박다.
- ③신랑 집에서 선채(先綵) 외에 따로 신부 집에 보내는 돈. ¶ 봉을 받고 나서 야 장모는 웃었다.

봉(封)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봉지 따위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과자 세 봉/ 약 한 봉.

(13) 봉지(封紙)

봉지(封紙)뜻

①종이나 비닐 따위로 봉투처럼 만든 주머니. ¶ 쓰레기 봉지/ 봉지를 뜯다/ 봉지에 담다/ 외투 주머니에서 해열제 봉지를 꺼내 놓는다. <심훈, 영원의 미소>/ 준은 호주머니에 든 군밤 봉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조금 망설이다가.... <최인훈, 회색인>

봉지(封紙)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작은 물건이나 가루 따위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과자 한 봉지/ 두꺼비는 사탕 몇 봉지, 계란 서너 개, 은단 한 갑, 사과와 빵을 한 보따리 꾸러서 내준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아주머니와 같이 먹게 서너 봉지 끓이세요. <문순태, 피아골>/ 절차를 밟아 의사 선생님을 뵈옵고 약 한 봉지를 얻어 들고 나왔다. <김성한, 김가성론>

(14) 상자(箱子)

상자(箱子)뜻

①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나무, 대나무, 두꺼운 종이 같은 것으로 만든 네모난 그릇. ¶ 케이크 상자/ 상자를 열다/ 물건을 상자에 담아 운반하다/ 소포로 배달된 상자 뚜껑을 여니 옷이 들어 있었다./ 장군이 드디어 등 뒤의 대령으로부터 훈장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를 받아 들었다. <홍성원, 육이오>

상자(箱子)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라면 한 상자/ 사과 세 상자/ 음료수 몇 상자만 옮겨 주시오.

(15) 석¹(石)

석¹(石)단의명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 벼 한 섬을 지게에 지다/ 군사들은 어백미 석 섬을 명석 위에 쏟아 부었다. <<박종화, 임진왜란>>

(16) 석²(席)

석²(席)단의명

좌석을 세는 단위. ¶ 이 공연장은 관람석이 오백 석 가까이 된다.

(17) 선(選)

선(選)명

시험이나 심사에 든 사람을 뽑는 일. ¶ 이제야 사실을 말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난 선에 들지 안 들지도 모르는 작품을 한답시고 한 시간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번에 불참했다. <<이영치, 프린 날 황야에서>>

(17) 식기(食器)

식기(食器)명

①음식을 담은 그릇. ‘밥그릇’, ‘음식 그릇’으로 순화. ¶ 식기를 씻다/ 식기를 말리다/ 끼니때마다 몇 차례로 나누어 먹인다고 하더라도 식기도 터무니없이 모자랐다. <<이호철, 남에서 온 사람들>>/ 그날 저녁에는 신부가 식기에 담아 온 흰 참쌀 붉은 팔으로 찰밥을 지어 밥상에 놔 주니라. <<최명희, 혼불>>

식기(食器)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①’에 담은 음식의 분량을 세는 단위. ¶ 밥 두 식기/ 그는 차례를 기다려 약수를 한 식기 마셨다.

(18) 엽(葉)

엽(葉)단의명

종이, 잎 따위를 세는 단위.

(19) 영(令)

영(令)단의명

가죽을 세는 단위. ♣ 양피 세 영/ 우피 다섯 영/ 호피 일 영.

(20) 입평(立坪)

입평(立坪)단위명

부피의 단위. 흙, 모래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1입평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여섯 자로 쌓아 올린 더미의 부피이다.

(21) 작(勺)

작(勺)단위명

①부피의 단위. 액체나 씨앗 따위의 양을 잴 때 쓴다. 한 작은 한 홉의 10분의 1로 18ml에 해당한다.

②땅 넓이의 단위. 한 작은 한 평의 100분의 1로 0.0330579m²에 해당한다.

(22) 잔(盞)

잔(盞)단위명

①차나 커피 따위의 음료를 따라 마시는 데 쓰는 작은 그릇. 손잡이와 받침이 있다. ♣ 잔에 우유를 따라 마시다/ 물을 잔에 따라 마시다/ 그는 커피가 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받침 위에 놓았다.

잔(盞)단위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료나 술을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우유 한 잔/ 커피 두 잔/ 술 석 잔.

(23) 재(才)

재(才)

[건] 재목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1재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한 치이고 길이가 열두자인 재목의 부피로 약0.00334m³에 해당한다.

(24) 정(挺)

정(挺)단위명

총(銃), 노(櫓), 떡, 호미, 삽, 양초 따위를 세는 단위. ♣ 총 열 정.

(25) 제(劑)

제(劑)단의(團)

[한]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스무 첩. 또는 그만한 분량으로 지은 환약(丸藥) 따위를 이른다. ¶ 쌍화탕 한 제/ 보약 한 제를 지어 먹다.

(26) 좌(座)

좌(座)뜻

- ① 앉을 자리나 지위. ¶ 임금의 좌에 오르다.
- ② [불] 부처, 보살, 제천(諸天)의 상(像)을 모시는 상좌(床座). 또는 중들이 앉는 자리.

좌(座)단의(團)

집, 거울, 불상 따위를 세는 단위. ¶ 보경(寶鏡) 일 좌/ 불체 삼 좌.

(27) 질(帙)

질(帙)뜻

- ① 책의 권수의 차례.
- ② 아래위가 터진 책갑. 두꺼운 종이에 천을 붙이고, 책 모양에 따라 접어 꼬챙이나 끈 따위를 맨다. 흔히 문집 따위의 덮개로 쓴다. ¶ 김 교수의 소장본은 질이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다.

질(帙)단의(團)

여러 권으로 된 책의 한 벌을 세는 단위. ¶ 백 권짜리 세계 문학 전집 한 질을 들여놓았다.

(28) 집(輯)

집(輯)단의(團)

시가나 문장 따위를 엮은 책이나 음악 앨범 따위를 낼 때 그 발행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 ¶ 문학 동인지 2집을 발행했다./ 그 가수는 이번에 5집 음반을 내었다.

(29) 차(車)

차(車)뜻

①바퀴가 굴러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전차, 우차, 마차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차가 다니다/ 차로 가다/ 차를 몰다/ 차를 타다/ 차에서 내리다/ 정거장에서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서 늦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시동을 거는 차들의 소음이 요란했다.

차(車)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화물을 ‘①’에 실어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모래 세 차/ 한 차 분량의 배추.

(30) 탕(湯)

탕(湯)명

①무엇을 실어 나르거나 일정한 곳까지 다녀오는 횟수를 세는 단위. ¶ 원주에서 서울까지 하루 두 탕 왕복했다./ 쓰레기를 세 탕이나 실어 날랐다./ 일이 많을 때에는 화물 트럭으로 하루에 두 탕이나 퍼 옮겨야 했다.

②어떤 일을 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 ¶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두 탕이나 뛰다.

(31) 탕기(湯器)

탕기(湯器)명

①국이나 찌개 따위를 떠놓는 자그마한 그릇. 모양이 주발과 비슷하다. ¶ 큼직한 탕기 하나가 구리 주전자에 그들먹한 술과 함께 나왔다. <<박종화, 전야>>

탕기(湯器)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국이나 찌개 따위를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국 한 탕기/ 미음을 한 탕기 비우다.

(32) 통¹(通)

통¹(通)단의명

편지나 서류, 전화 따위를 세는 단위. ¶ 편지 세 통/ 전화 한 통/ 이력서 한 통과 호적 등본 두 통, 졸업 증명서 두 통을 준비해 두어라.

(33) 통²(桶)

통²(桶)명

①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 통에 물을 받아 두다/ 원숭이 집어넣을 통을 만들던 덕보는 손을 놓고 눈발이 뿌리기 시작하는 밖을 내다보았다. <<한수산, 부초>>

통²(桶)단위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물건을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막걸리 한 통/ 통조림도 몇 통 사 들었다. 산모와 아이들에게 줄 과일과 오징어 발도 사 가져왔다. <<이정환, 셋강>>

(34) 판(板)

판(板)명

①=널빤지.

②반반한 표면을 사용하는 기구. 바둑판, 장기판 따위가 있다.

③=음반. ㉠ 그 가수는 오랜만에 판을 내고 가수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는 가끔 오래된 유성기에 판을 걸고 옛날의 추억에 잠긴다.

판(板)단위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달걀을 묶어 세는 단위. 한 판은 닭걀 삼십 개를 이른다. ㉠ 달걀 두 판.

(35) 포(包)

포(包)명

일정한 양으로 싸인 인삼.

포(包)단위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양으로 싸인 인삼을 세는 단위. ㉠ 인삼 두 포.

(36) 포대(布袋)

포대(布袋)명

①=베자루.

포대(布袋)단위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물건을 ‘①’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4) 무게

(1) 관(貫)

관(貫)단의명

무게의 단위. 한 관은 한 근의 열 배로 3.75kg에 해당한다. ¶ 감자 세 관/ 한 관에 얼마입니까? ¶ 엽전 일곱 관.

(2) 근¹(斤)

근¹(斤)단의명

① 무게의 단위. 한 근은 고기나 한 약재의 무게를 잴 때는 600그램에 해당하고, 과일이나 채소 따위의 무게를 잴 때는 한관의 100분의 1로 375그램에 해당한다. ¶ 쇠고기 한 근. ② 《일부 명사 뒤에 쓰여》 약간의 그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모처럼 가신다면 고기 근이라도 사 가셔야죠?

(3) 근²

근²단의명

무게의 단위. 한 근은 양지(洋紙) 500장의 무게이다.

(4) 리²(理)

리²(理)

그럴 리가 (어미 '-을' 뒤에 '있다', '없다' 따위와 함께 쓰여)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그럴 리가 없다/ 운양 대감이나 나나 이미 허리 부러진 호랑인데, 저들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와줄 리 있겠소?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문은 잠겨져 있었으므로 나갔을 리 만무다. 《박경리, 원주 통신》/ 민기의 성격으로 그 비밀을 그의 처에게 고백하지 않았을 리 또한 없을 터였다. 《이정환, 셋강》

(5) 리³(釐/厘)

리³(釐/厘)단의명

①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 1리는 전체 수량의 1,000분의 1로 1푼의 10분의 1이다. ¶ 4할 3푼 5리

②길이의 단위. 1리는 1푼의 10분의 1로 0.3mm에 해당한다.

③무게의 단위. 주로 귀금속 따위의 무게를 잴 때 쓴다. 1리는 1푼의 10분의 1로 0.0375그램에 해당한다.

(6) 자(字)

무게의 단위. 한약의 무게를 잴 때 썼다. 한 자는 2푼 5리로 1그램에 해당한다.

(7) 칭(秤)

칭(秤)단위명

무게의 단위. 1칭은 1근의 100배이다.

5) 액수

(1) 불(佛)

불(佛)단위명

①=달러.

(2) 냥(兩)

냥(兩)단위명

①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 한 냥은 한 돈의 열 배이다. 1돈 천 냥/ 돈 만 냥을 꾸다. ②무게의 단위. 귀금속이나 한약재 따위의 무게를 잴 때 쓴다. 한 냥은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는 한 돈의 열배이고, 한약재의 무게를 잴 때는 한 근의 16분의 1로 37.5그램에 해당한다. 1금 냥/ 감초 석 냥.

(3) 전(錢)

전(錢)단위명

①우리나라의 화폐 단위. 1전은 1원의 100분의 1로, 실제 쓰이지 않는 보조 단위이다.

②우리나라의 옛 화폐 단위. 1전은 1원(圓)이나 1환(圓)의 100분의 1이다.

③(한자어 수 다음에 쓰여) 예전에, 엽전을 묶어 세던 단위. 1전은 열 푼을 이른다. 1 엽전 이전.

④중국 당나라 때의 화폐 단위.

(4) 환(圓)

환(圓)단의명

- ①우리 나라령 옛 화폐 단위. 1환은 1전(錢)의 100배이다.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통용되었다.
- ②대한 제국 때의 화폐 단위.

6) 시간

(1) 각(刻)

각(刻)단의명

1각은 약 15분 동안으로, 본래 시헌력(時憲曆)을 채택하기 이전에 하루의 100분의 1이 되는 14분 24초 동안을 나타내던 단위였다. ¶ 인화가 스승에게서 놓여 나온 것은, 스승의 방에 불리워 들어간 때부터 반 각이나 지나서였다. 《김동인, 젊은 그들》

(2) 광년(光年)

광년(光年)단의명

[천]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1광년은 빛이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로 9조 4670억 7782만 km이다. 기호는 ly 또는 lyr.

(3) 교시(校時)

교시(校時)단의명

학교의 수업 시간을 세는 단위. 흔히 40분 또는 45분, 50분 따위로 정한다. ¶ 독감에 걸려 1교시 수업 후에 조퇴했다.

(4) 기(期)

기(期)명

일정한 기간씩 되풀이되는 일의 하나하나의 과정. ¶ 우리는 같은 기로 졸업했다./ 이번 기 후보생들은 모두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기(期)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씩 되풀이되는 일의 하나하나의 과정

을 세는 단위. ¶ 제8기 졸업생 일동/ 1년을 4기로 나누다.

(5) 년(年)

년(年)단의명

《주로 한자어 수 뒤에 쓰여》해를 세는 단위. 1년은 약 365.25일이다. ¶서기 2000년/ 단기 4333년/ 세종 24년/ 몇 년 후의 모습/ 3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번밖에 못 만난다./ 고향을 떠난 지 팔 년이 지났다./ 한곳에서 수십 년 동안 자란 나무를 정원에 옮겨 심었다.

(6) 령(齡)

령(齡)단의명

[농] 누에의 나이를 세는 단위. 1령은 잠과 잠 사이로 보통 5령 끝에 가서 고치를 만들기 시작한다.

(7) 분(分)

분(分)단의명

한 시간의 60분의 1이 되는 동안을 세는 단위. ¶ 10시 20분/ 1분만 기다려 줘.

(8) 삭(朔)

삭(朔)단의명

=개월(個月). ¶내가 유학 온지 칠팔 삭 만에 어머니가 보러 오셨다.

(9) 세²(歲)

세²(歲)단의명

(한자어 수 뒤에 쓰여) 나이를 세는 단위. ¶ 만 육십 세/ 삼십오 세.

(10) 시(時)

시(時)단의명

①차례가 정하여진 시각을 이르는 말. ¶ 5시 30분/ 지금 몇 시나 되었나?/ 지금은 세시가 조금 넘었다./ 정각 열 시에 만납시다.

②(일부 명사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
¶ 비행 시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규칙을 어겼을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

③예전에, 주야를 12지(支)에 따라 12등분한 단위. 자시(子時), 축시(丑時), 인시(寅時), 묘시(卯時), 진시(辰時), 신시(申時), 유시(酉時), 술시(戌時), 해시(亥時)가 있다.

(11) 시간(時間)

시간(時間)㉠

①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 시간 낭비/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②=시각(時刻). ¶ 취침 시간/ 마감 시간/ 약속 시간을 지키다.

③어떤 행동을 할 틈. ¶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었다.

④어떤 일을 하기로 정하여진 동안. ¶ 수업 시간/ 점심 시간/ 회의 시간에 준다.

⑤때의 흐름. ¶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⑥ [물] 지구의 자전 주기를 재서 얻은 단위. 이론적으로 고전 물리학에서는 공간에서 독립한 변수 곧 절대 시간으로 다루어졌으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양자가 물리적 사건을 매개로 하여 사차원의 시공 세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⑦ [불] 색(色)과 심(心)이 합한 경계.

⑧ [심] 전후(前後), 동시(同時), 계속의 장단(長短)에 관한 의식(意識).

⑨ [철]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무한히 연속되는 것. 곧 사물의 현상이나 운동, 발전의 계기성과 지속성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존재 형식을 말한다.

시간(時間)㉡의㉠

하루의 24분의 1이 되는 동안을 세는 단위. ¶ 두 시간 동안 책을 읽다/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이 걸린다.

(12) 월(月)

월(月)㉠

한 달 동안. ¶ 달을 세는 단위. 주로 형을 선고하거나 구형할 때 쓴다. ¶ 피고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월(月)단의명

《주로 한자어 수 뒤에 쓰여》달을 세는 단위. 주로 형을 선고하거나 구형할 때 쓴다. ¶피고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13) 일(日)

일(日)단의명

《주로 한자어 수 뒤에 쓰여》날을 세는 단위. ¶삼 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다 / 이번 달 25일은 어머니 생신이다.

(14) 주(週)

주(週)명

=주일(週日) I. ¶ 이번 주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주(週)단의명

=주일. ¶ 한 달은 보통 4주로 되어 있다.

이레 동안을 세는 단위. ¶ 두 주일/ 5주일/ 여러 주일/ 올해도 몇 주일 안 남았다./ 이 일을 끝내는 데는 약 두 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그가 처음 월급을 받은 날은 마침 월요일, 한 주일의 일과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영치, 흐린 날 황야에서》

(15) 주일(主日)

주일(主日)명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이레 동안. ¶ 다음 주일/ 지난 주일/ 이 달의 마지막 주일 /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 단위로 보수를 받는다./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만나기 바쁘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는데 주로 그 주일의 벌이와 가게의 전망 따위였다. 《이문열, 변경》

주일(主日)단의명

이레 동안을 세는 단위. ¶ 두 주일/ 5주일/ 여러 주일/ 올해도 몇 주일 안 남았다./ 이 일을 끝내는 데는 약 두 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그가 처음 월급을 받은 날은 마침 월요일, 한 주일의 일과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영치, 흐린 날 황야에서》

(16) 초(初)

초(初)단의명

어떤 기간의 처음이나 초기. ¶ 조선 초/ 20세기 초/ 학기 초/ 내년 초에 다시
만남시다.

(17) 초(秒)

초(秒)단위

①한 시간의 3,600분의 1이 되는 동안을 세는 단위. ¶일 분 일 초를 다투는
급박한 사건/ 현재 시각은 11시 59분 55초를 막 지나고 있다. / 진동이 약 삼
초 정도 계속되었다. / 몇 초 동안의 침묵이 지난 뒤에 내게도 조금은 귀 익은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나타내는 단위. 《조해일, 아메리카》 ②[수]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 1초는 1분의 60분의 1이다. 기호는 “. ③[지]위도나
경도를 나타내는 단위. 1초는 1분의 60분의 1이다. 기호는 ”.

7) 에너지

(1) 촉광(燭光)

촉광(燭光)단위

촛불의 빛. ¶ 어두웠지만, 촉광 속에 상대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촉광(燭光)단위

[물]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2) 촉력(燭力)

촉력(燭力)단위

=촉광 I.

촉력(燭力)

=촉광 II.

8) 사람

(1) 구(具)

구(具)단위

시체를 세는 단위. ¶시체 세 구/ 강 하류에서 다섯 구의 시체가 인양되었다.

(2) 급(級)

급(級)단의명

①전쟁에서 죽인 적군의 머리를 세는 단위. ②=두름. ¶조기 한 급. ③[출]사진 식자에서 자체(字體)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 글의 제목은 몇 급으로 할까요?

(3) 기(騎)

기(騎)단의명

말을 탄 사람을 세는 단위. ¶ 십여기의 기병.

(4) 년생(年生)

년생(年生)단의명

어떤 학년의 학생임을 이르는 말. ¶그녀는 발랄하고 꿈 많은 여고 2년생이다.

(5) 명(名)

명(名)단의명

사람을 세는 단위. ¶ 한 명/ 학생 삼십 명/ 열댓 명.

(6) 조(組)

조(組)명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적은 사람들의 집단. ¶ 조를 짜다/ 조를 평성하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친한 친구와 다른 조가 되어서 섭섭하다.

조(組)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세는 단위. ¶ 토론을 하기 위하여 한 번을 다섯 조로 나누었다.

(7) 패(牌)

패(牌)명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의 무리. ¶ 패를 갈라놓다/ 우길이 동무들은 패를 지어 돌아다니며 율타리 구멍으로 처녀들 널뛰는 것을 구경하였다. <<한설야, 탐>>/ 젊은 패와 늙은 패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막거리를 마시기 시작했다. <<박완서, 도시의 흥년>>

패(牌)단(單)의(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무리를 세는 단위. ¶ 작은 오해 때문에 우리는 두 패로 갈렸다./ 그들은 두 패로 나누어 길을 떠났다./ 또 한 패는 부엌에서 떡을 찌느라고 범석이다. <<이무영, 농무>>

9) 동물

(1) 두(頭)

두(頭)단(單)의(의)명

소나 말 따위의 짐승을 세는 단위. ‘마리’로 순화. ¶ 젓소 15두.

(2) 미(尾)

미(尾)명

인삼 뿌리의 잔 가닥.

미(尾)단(單)의(의)명

물고기나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 생선 열 미.

(3) 필(匹)

필(匹)단(單)의(의)명

말이나 소를 세는 단위. ¶ 소 두 필/ 역(驛)을 설치하여, 십여 필 내지 수십 필의 말을 비치하여 두고... 《이희승, 소경의 잠꼬대》

10) 식물

(1) 본(本)

본(本)단(單)의(의)명

초목 따위를 세는 단위.

(2) 주²(株)

주²(株)단(單)의(의)명

=그루. ¶ 느티나무 한 주.

(2) 타(朶)

타(朶)단의명

꽃송이나 꽃가지를 세는 단위.

11) 장소

(1) 동(棟)

동(棟) 명

① [건] 용마루, 추녀마루 따위처럼 지붕 위에 있는 마루.

②규모가 큰 집채

동(棟)단의명

집채를 세거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 ¶ 두 동짜리 아파트/ 이 아파트 3동 앞에 분수가 있다.

(2) 실(室)

실(室) 명

회사나 관청 따위에서 사무 부서의 한 단위. 과(課)나 부(部)의 위이며 우두머리는 실장이다.

실(室)단의명

방을 세는 단위. ¶객실 10실을 예약하다.

(3) 필(筆)

필(筆)단의명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 =필지³(筆地). ¶논밭 두어 필.

12) 횃수

(1) 교¹(校)

교¹(校)단의명

인쇄 교정의 횃수를 세는 단위. ¶4교를 본 원고인데도 오자가 많다.

(2) 박(泊)

박(泊)단의뎡

객지에서 묵는 밤의 횃수를 세는 단위. ¶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머무르다.

(3) 발(發)

발(發)단의뎡

①총알, 포탄, 화살 따위를 쏜 횃수를 세는 단위. ¶총을 수십 발 쏜다/ 그는 후드득거리며 도망 다니는 닭들을 죽이는 데 단 한발도 헛쏘지를 않았다. 《안정효, 하얀전쟁》/동학군의 화승총이 한 발 나갈 때 관군이 가지고 있는 신식 양총은 두 발 내지 세 발이 나갈 수 있을 만큼 총의 성능이 우수했고 빨랐다. 《유현중, 들불》 ②(비유적으로) 야구 경기에서 홈런을 친 횃수를 세는 단위. ¶어제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 팀은 홈런을 네 발이나 터뜨리며 상대 팀을 큰 점수 차로 압도하였다./ 그 선수는 홈런 한 발로 자기 팀의 승리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4) 방(放)

방(放)단의뎡

①총포를 쏘거나 남포 따위를 터뜨리는 횃수를 세는 단위. ¶총을 네댓 방 쏘았다. / 남포가 몇 방 터졌다. /공포를 한 방 놓았다. /총 서너 방에 모두 겁을 먹고 달아났다. ②주먹, 방망이 따위로 치는 횃수를 세는 단위.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지다 / 주먹 몇 방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홈런을 세 방이나 날렸다. ③사진을 찍는 횃수나 필름의 장수(張數)를 세는 단위. ¶스물네 방을 찍을 수 있는 필름 /한 곳에서 여러 방 찍지 마라. ④방귀를 끼는 횃수를 세는 단위. ¶참았던 방귀를 몇 방 끼었더니 시원하다.

(5) 번(番)

번(番)뎡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 ¶ 번을 서다.

번(番)단의뎡

①일의 차례를 나타내는 말. ¶ 둘째 번/ 다음 번 면담은 너이다.
②일의 횃수를 세는 단위. ¶ 여러 번/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 몇 번을 그 앞을 왔다 갔다 하여 보았지만, 들어갈 기회는 얻을 수가 없었다. 《김동인, 젊은그들》

③어떤 범주에 속한 사람이나 사물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 ¶ 4번 타자/ 1학년 2반 34번/ 1번 버스.

(6) 범(犯)

범(犯)단의명

형벌을 받은 횟수를 세는 단위. ¶사기 전과 3범.

(7) 선(選)

선(選)명

시험이나 심사에 든 사람을 뽑는 일. ¶ 이제야 사실을 말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난 선에 들지 안 들지도 모르는 작품을 한답시고 한 시간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번에 불참했다. <<이영치, 프린 날 황야에서>>

선(選)단의명

여럿 가운데 뽑힌 횟수나 차례를 세는 단위. ¶삼 선 의원.

(8) 세¹(世)

세¹(世)단의명

《한자어 수 뒤에 쓰여》가계나 지위의 차례, 또는 왕조의 임금 순위를 나타내는 단위. ¶십오 세 후손/ 나폴레옹 삼세/ 헨리 팔세. ∴왕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세’, ‘이세’ 따위는 ‘나폴레옹 삼세’, ‘헨리 팔세’에서처럼 붙여 쓴다.

(9) 세²(歲)

세²(歲)단의명

(한자어 수 뒤에 쓰여) 나이를 세는 단위. ¶ 만 육십 세/ 삼십오 세.

(10) 수¹(手)

수¹(手)명

바둑이나 장기 따위를 두는 기술. 또는 그 기술 수준. ¶ 한 수 위/ 수가 높다 / 수가 얕다/ 수를 읽다/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수¹(手)단의명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한 번씩 번갈아 두는 횡수를 세는 단위. ¶몇 수 앞을 보고 두다 / 이 한 수가 최대의 패착이다. / 한 수만 물리자.

(11) 승(乘)

승(乘)㉠

승부 따위에서 이기는 일. ¶ 배구 시합에서 첫 승을 올리다/ 이번 바둑에서는 흑이 반집 승을 거두었다.

승단의명

운동 경기에서, 이긴 횡수를 세는 단위. ¶3전 2승 1패.

(12) 주¹(周)

주¹(周)㉠

[수¹] 다각형이나 폐곡선 따위의 둘레의 길이.

주¹(周)단의명

어떤 것의 둘레를 돈 횡수를 세는 단위.

(13) 차(次)

차(次)단의명

① 《주로 한자어 수 뒤에 쓰여》 ‘번’, ‘차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제일 차 세계 대전/ 그들은 선생님 택을 수십 차 방문했다. ② 《‘-던 차에’, ‘-던 차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떠한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 ¶잠이 막 들려던 차에 전화가 왔다. / 집을 떠난 지 삼 년이 되도록 편지 한 장 올리지 않고 있던 차에 덜컥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보니 뉘우침과 슬픔이 한데 솟구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마해송, 아름다운 새벽》 ③ [수¹] 방정식 따위의 차수를 이르는 말.

(14) 판(版)

판(版)㉠

①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나 쇠붙이의 조각.

② 활판²(活版).

③ 인쇄한 면(面)의 크기.

④인쇄하여 책을 만드는 일.

판(版)단의명

(한자어 수 뒤에 쓰여) 책을 개정하거나 증보하여 출간한 횟수를 세는 단위. 1판은 초판, 2판은 중판 또는 재판이라고도 한다. ¶ 삼 판/ 4판 3쇄.

(15) 합(合)

합(合)단의명

칼이나 창으로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서로 마주치는 횟수를 세는 단위. ¶ 두 사람의 칼싸움은 십여 합에 승부가 났다.

(16) 회(回)

회(回)단의명

횟수를 나타내는 말. ¶ 제2회 정기 총회/ 제자리 뛰기를 2회 실시한다. 준비!/ 공연을 여러 회 거듭할수록 그의 연기는 더욱 훌륭해졌다.

13) 거리

(1) 리¹(里)

리¹(里)단의명

거리의 단위. 1리는 약0.393km에 해당한다. ¶ 예전에는 학교까지 오 리쯤 걸어 다녔다./ 숲이 나타나고 황톳길이 나타나고 섬진강을 따라 굽이쳐 뺨은 삼십 리, 하동으로 가는 길이 나타난다. <박경리, 토지>/집안 어른이나 가까이서 돌봐 줄 남자 친척 하나 없이 일찍부터 홀로가 된 그의 어머니는 인근 백리 가까이에 뺨쳐 있는 들을 말에 의지해 돌보았다. <이문열, 영웅 시대>

(2) 리²(哩)

리²(哩)단의명

=마일(mile).

(3) 리³(漈)

리³(漈)단의명

=해리(海里).

(4) 보(步)

보(步)단의명

①거리의 단위. 1보는 한 걸음 정도의 거리이다. ¶ 다섯 보/ 삼 보 앞으로/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

②거리의 단위. 1보는 주척(周尺)으로 여섯 자 되는 거리이다.

③=평(坪).

(5) 해리(海里)

해리(海里)단의명

거리의 단위. 바다 위나 공중에서 긴 거리를 나타낼 때 쓴다. 1해는 1,852미터에 해당하나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배의 속도를 표시할 때는 1해리를 1노트(knot)로 한다. 기호는 n mile. = 리⁵(浬). ¶ 2백 해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리고 남동쪽 서너 해리 쯤의 해상에서도 불야성처럼 휘황한 전등을 밝힌 오징어잡이 선단이 진을 치고 있었다. 《박해준, 이산별곡》

14) 무생물

(1) 권(卷)

권(卷)단의명

①책을 세는 단위. ¶ 책 두 권/ 낚시에 관한 책을 세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 ②여럿이 모여 한 별을 이룬 책에서 그 순서를 나타내는 말. ¶ 삼국지 2권을 읽고 있다. ③ 《책과 관련된 명사 뒤에 쓰여》 그것씩이나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옛날 어릴 적에 훈장 앞에서 상반신을 흔들며 글 읽던 일이 생각났고 《통감》 권이나 읽다 만 일이 아쉽기도 했던 것이다. 《박경리, 토지》 ④주로 고서(古書)에서 책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단위. ¶ 《고산유고》 권6/ 《훈몽자회》는 3권 1책으로 되어 있다. ⑤한지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권은 한지 스무 장을 이른다. ¶ 창호지 네 권. ⑥=릴²(reel) ¶ 필름 세 권.

(2) 궤(几)

궤(几)단의명

바둑을 둘 때 판을 세는 단위. ¶ 바둑이나 한 궤 두세.

(3) 교(絞)

교(絞)단의형

끈이나 새끼줄 따위의 가닥을 세는 단위.

(4) 건(件)

건(件)형

①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특정한 일이나 사건.

건(件)단의형

사건, 서류, 안건, 조항 따위를 세는 단위. ¶ 주말에 고속도로에서 꼴○사고가 일곱 건이나 일어났다./ 오늘 하루만도 같은 문제로 소송 서류가 네 건 접수되었다./ 화재가 동일한 지역에서 잇따라 세 건 발생하였다.

(5) 기(基)

기(基)단의형

①무덤, 비석, 탑 따위를 세는 단위.

②원자로, 유도탄 따위를 세는 단위.

(6) 단(段)

단(段)형

인쇄물의 지면을 가로나 세로로 나누 구획. ¶ 이 책은 단을 나누지 말고 조판(組版)을 합시다./ 이 페이지의 왼쪽 단은 비워 두시오.

단(段)단의형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인쇄물의 지면을 나누 구획을 세는 단위. ¶ 오늘 신문 제 1면 제1단에는 어떤 기사가 났느냐?

(7) 대(代)

대(代)단의형

차나 기계, 악기 따위를 세는 단위. ¶녹음기 한 대/ 피아노 두 대/ 자동차 다섯 대/ 비행기 열 대 / 윤전기 세 대.

(8) 도(度)

도(度)단의형

- ① [물] 섭씨 또는 화씨 온도의 단위. ¶ 영하 십 도.
- ② [수] 각도의 단위. 1도는 직각의 90분의 1이다. 보통 숫자 뒤 어깨에 ‘-’를 두어 나타낸다.
- ③ [음] 음정의 단위. 보표 위에서 같은 선이나 같은 칸이다.
- ④ [지] 위도나 경도를 나타내는 단위. ¶ 비행기가 동경 사십도를 지나고 있다.
- ⑤ [화] 물질의 경도(硬度), 비중,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 ¶ 그는 오십 도가 넘는 독주에도 취하지 않는다.

(9) 등(等)

등(等)형

- ①=등급(等級).
- ② [역] =등내(等內)

등(等)단의형

등급이나 석차를 나타내는 단위. ¶ 100미터 경주에서 일곱 명 중에 오 등을 했다.

(10) 등급(等級)

등급(等級)형

①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의 따위의 차이를 여러 층으로 구분한 단계. ¶ 신체 등급/ 등급 판정/ 등급을 매기다/ 등급을 정하다/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을 품질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等級)단의형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여러 층으로 구분한 단계를 세는 단위. ¶ 일 등급 품질.

(11) 등성(等星)

등성(等星)단의형

[천] =등급Ⅱ.

(12) 마력(馬力)

마력(馬力)단의명

[물] 동력이나 일의 양을 나타내는 실용 단위. 말 한 마리의 힘에 해당하는 일의 양이다. 1마력은 1초당 746줄(joule)에 해당하는 노동량으로 746와트의 전력에 해당한다. 기호는 HP=에이치피·피에스²(PS)

(13) 막(幕)

막(幕)명

- ①겨우 비바람을 막을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 ¶ 막을 짓다.
- ②칸을 막거나 어떤 곳을 가리기도 하는, 천으로 된 물건. 주로 무대 앞을 가리는 데 쓰인다. ¶ 막을 치다.

막(幕)단의명

[연] 연극의 단락을 세는 단위. 한 막은 무대의 막이 올랐다가 다시 내릴 때 까지로 하위 단위인 장(場)으로 구성된다.=액트. ¶ 이 연극은 2막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모(毛)

모(毛)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광주(光州), 공주(公州), 서산(瑞山), 김해(金海)등이 현존한다.

모(毛)단의명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 1모는 전체 수량은 10,000분의 1로 1리의 10분의 1이다.

(15) 문(門)

문(門)명

- ①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띄워 놓은 곳. 또는 그곳에 달아 놓고 여닫게 만든 시설. ¶ 집을 비울 때는 문을 꼭 잠가야 한다./ 그는 화가 난 듯이 문을 쿵 닫았다./ 문이 고장나서 열 수가 없다.
- ②서울의 네 대문, 곧 동쪽의 홍인지문, 서쪽의 돈의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③ [운] =골문. ¶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문을 향하여 강하게 공을 차다/ 그가 찬 공이 아슬아슬하게 문을 빗겨 나가자 관중석에서는 아쉬움의 탄성이 일

었다.

④ 거처야 할 관문이나 고비. ¶ 입학이 어려운지라, 우리나라의 대학은 좁은 문이라는 별명을 듣는다.

문(門)단의명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학술 전문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 ¶ 어학문/법학문.

②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씨족에 따른 집안을 나타내는 말. ¶ 강씨문(姜氏門)/이씨문(李氏門).

③ [생] 강(綱)의 위이고 계(界)의 아래인 생물 분류 단위의 하나. 동물에서는 발생 및 체제의 모양을, 식물에서는 엽록소의 유무나 체제의 양식 따위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다.

문(門)단의명

포나 기관총 따위를 세는 단위. ¶ 대포 다섯 문.

(16) 번수(番手)

번수(番手)단의명

[수³] 섬유나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 실의 표준 중량에 대한 실의 길이가 단위 길이의 몇 배가 되는가에 따라 표시되는데, 주로 영국식과 공통식을 쓴다. 영국식은 면사의 경우 실 1파운드 곧 453.6그램의 길이가 약 768미터일 때에 1번수라 하고 'S'로 나타내며, 길이가 두 배가 되면 2번수, 열 배가 되면 10번수라 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실은 가늘어진다. 공통식은 실 1kg의 길이가 1km일 때에 1번수라 하고 'N'으로 나타낸다.

(17) 보(甫)

보(甫)단의명

예전에, 나이가 서로 비슷한 벗 사이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에 성(姓) 또는 이름 다음에 붙여 쓰던 말. ¶ 김○○ 보/ 강 보야, 이리 와 봐라.

(18) 부(部)

부(部)명

① 업무 조직에서의 부서의 하나. 과(課)의 위, 실(室)의 아랫니다. ¶ 부의 책임자는 부장이다.

② [법] 우리나라 중앙 행정 기관의 분류 단위의 하나. 우두머리는 장관이다.

¶ 국무회의 때 각 부의 장관들이 모인다.

부(部)단의형

① 몇 차례로 이루어지는 일의 한 차례. ¶ 행사의 제이 부 순서.

② 신문이나 책을 세는 단위. ¶ 만 부를 발행하다/ 사회 복지관에서 책 십여 부를 학교에 보냈다./ 이 책자는 사무실마다 한 부씩 비치하고 있다.

(19) 부대(負袋)

부대(負袋)형

종이, 피륙,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 ¶ 밀가루 부대. 그는 한 손에는 현금을 넣은 부대를 들고 있었다. <최인호, 지구인>/ 그것은 밭에서 거둔 채소를 부대에 넣어 가지고 돌아오던 마을 여자였습니다. <황석영, 무기의 그늘>

(20) 수(首)

수(首)단의형

① 시나 노래를 세는 단위. [시 한 수 읊조리다/ 시조 한 수를 짓다. ②=마리.] 닭 열 수/ 오리 이십 수.

(21) 승(乘)

승(乘)단의형

수레 따위를 세는 단위. ¶ 병거(兵車) 삼백 승.

(22) 식(式)

식(式)형

① 일정한 전례, 표준 또는 규정.

②=의식(儀式).

③ [수¹] 숫자, 문자, 기호를 써서 이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 것.

식(式)단의형

일정한 방식이나 투. ¶ 사내는 젊은이가 그런 식으로나마 그를 상대해 주고 있는 것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이청준, 잔인한 도시>

(23) 위(位)

위(位)단의형

①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매겨진 등급이나 등수. 『달리기에서 1위를 하다 / 우리 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 순위 4위를 차지했다. ②신주(神主), 또는 위패(位牌)로 모신 신을 세는 단위. 『영령 십 위를 사당에 모시다 / 5백 위도 넘는 귀신들이 밥 먹으러 강신하는 한밤중이면 슬픈 곡성이 터졌다. 《현기영, 순이 삼촌》

(24) 장¹(杖)

장¹(杖)단의명

곤장, 태장, 형장 따위를 세는 단위.

(25) 장²(張)

장²(張)단의명

①종이나 유리 따위의 얇고 넓은 물건을 세는 단위. 『종이 한 장/ 기와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올렸다. / 벽에는 노랗고 퇴색한 사진이 두 장 걸려 있다. 《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 ②활, 쇠뇌, 금슬(琴瑟)을 세는 단위. ③얇은 구름의 덩이를 세는 단위. 『구름 한 장 하늘에 덮이지 않았다. 《박종화, 다정불심》 ④누에의 씨를 세는 단위. 무게로 10그램인데, 알의 수로는 1만 5000알 정도이다. 종이나 천에 풀을 칠하고 알을 받은 데서 생긴 말이다. 『누에씨 한 장에서 30킬로그램씩 나온다. 《선대》

(26) 장³(場)

장³(場)단의명

[연] 연극의 단락을 세는 단위. 막(幕)의 하위 단위로 무대 장면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건의 한 토막을 이른다. 『2막 3장.

(27) 점(點)

점(點)단의명

①작고 둥글게 찍은 표. 『종이에 작은 점을 찍다/ 그 그림엔 몇 개의 줄과 점이 있을 뿐이다. ②문장 부호로 쓰는 표. 온점, 반점, 가운데점 따위를 이른다. 『한 문장을 다 쓰고 점을 찍어 마쳤다. ③사람의 살갓이나 짐승의 털 따위에 나타난, 다른 색깔의 작은 얼룩. 『그는 이마에 큰 점이 하나 있다.

- ④소수의 소수점을 이르는 말. ¶ 그는 오른쪽 눈이 영 점 일이다.
- ⑤(관형사형 다음에 쓰여) 여러 속성 가운데 어느 부분이나 요소. ¶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는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 ⑥ [수] 모든 도형의 궁극적 구성 요소인 가장 단순한 도형으로서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는 것.

점(點)단의명

- ①성적을 나타내는 단위. ¶ 백 점을 맞다.
- ②그림, 옷 따위를 세는 단위. ¶ 그림 한 점/ 의류 열 점.
- ③(주로 수 관형사 ‘한’ 뒤에 쓰여) 아주 적은 양을 나타내는 말. ¶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
- ④잘라내거나 뜯어낸 고기 살점을 세는 단위. ¶ 생선회 두 점/ 나는 고기 한 점 먹지 못했다.
- ⑤떨어지는 물방울 따위를 세는 단위. ¶ 빗방울이 한 점비 두 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 ⑥예전에, 시각을 세던 단위. 왜종시계의 종 치는 횃수로 세었다. ¶ 벽시계가 다섯 점 치는 소리를 듣고 오산댁은 눈을 떴다. <한승원, 해일>
- ⑦ [운] 바둑에서, 수가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돌이나 따낸 돌을 세는 단위. ¶ 석 점 놓고 두다.
- ⑧ [음] 북편이나 채편 따위의 장구를 치는 횃수를 나타내는 단위.

(28) 주²(株)

주²(株)명

- ①=주식(株式).
- ②=주권(株券).

주²(株)단의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주권이나 주식을 세는 단위. ¶ 국민주 50주를 샀다.

(29) 지(趾)

지(趾)단의명

(한자어 수 뒤에 쓰여) ‘발가락’의 뜻을 나타내는 말.

(30) 척(隻)

척(隻)단의명

배를 세는 단위. ¶ 배 한 척/ 여객선 두 척/ 군함 세 척.

(31) 촌(寸)

촌(寸)단의명

①친족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단위. ¶그 사람과는 몇 촌 간이나? / 나와 촌수로는 이십 촌 안팎으로, 국군이 밀고 올라왔을 때는 잠깐 이(里) 사무소 일도 맡아보던 사람이었다. 《이호철, 소시민》 ②=치.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십이 일에 본정통 삼영 철물점에서 길이 칠 촌 가량 되는 단도를 사가지고 박 씨의 문전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건만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현진건, 적도》

(32) 추(錘)

추(錘)명

①=저울 추.

②끈에 매달려 늘어진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벽시계의 추 움직이는 소리만 들린다./ 천 근이나 나가는 추처럼 무겁게 끌고 다니던 책가방은 돌변해서 기구처럼 가볍게 플날리고 있었고... 《박완서, 오만과 몽상》

추(錘)단의명

방추(紡錘)를 세는 단위.

(33) 축(軸)

축(軸)단의명

①책력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축은 책력 스무 권을 이른다. ②종이를 세는 단위. 한 축은 한지는 열 권, 두루마리는 하나를 이른다. ③예전에 과거를 볼 때, 답안을 묶어 세던 단위. 한 축은 답안지 열 장이다.

(34) 타¹(打)

타¹(打)단의명

물건 열두 개를 한 단위로 세는 말. ¶양말 한 타/ 연필 두 타를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

(35) 호²(號)

호²(號)단의명

①같은 번지 내에 집이 여럿 있을 때 일정하게 순서를 매겨 쓰는 말. ¶174번지의 5호. ②어떤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 ¶101호 강의실 / 교양관 108호 / 동관 703호 병실. ③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이 간행된 차례나 그 성격을 나타내는 말. ¶일월 호/ 제17권 제2호 / 이번 호에 실린 논문 / 신년 특별 호 / 다음 호에는 별책 부록이 나온다. ④활자의 크기가 나타내는 단위. 초호부터 시작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활자가 작아진다. ¶5호 활자/ 8호 활자. ⑤화포(畫布)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1호부터 시작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화포도 커진다. ¶그 화가는 반절이나 넘게 그리다가 오백 호 대작을 중도에 포기했다. / 나는 십 호 정도의 수채화에 눈길을 멈추었다.



IV. 단위성 의존명사의 발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가운데에는 의존명사만으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립명사가 의존명사의 기능을 띠는 경우도 있다.

- (14) 가. 사과 한 개, 소 한 마리
나. 쌀 한 되, 콩 한 말
다. 학생 한 사람, 파 한 뿌리

(14가)의 ‘개, 마리’ 등은 자립명사로는 쓰이지 않고 의존명사로만 쓰인다. (14나)의 ‘되, 말’의 경우 의존명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립명사로도 쓰이며, (14다)의 ‘사람, 뿌리’는 자립명사로 쓰이는 것이 더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의존명사로도 쓰인다.⁷⁾

고유어계에서 자립명사가 단위성 의존명사가 자립명사로 발달되어 쓰이는 것으로는 가래, 가마니, 강다리, 공기, 광주리, 그릇, 동, 동이, 물, 못, 바가지, 마구니, 바퀴, 바탕, 밭, 배, 벌¹, 벌², 벌³, 보시기, 뽕, 삼태기, 삼, 섬, 숟가락, 짬지, 아름, 입, 자루, 전, 접시, 젓가락, 종구라기, 종지, 주먹, 지게, 초롱, 화가 있다. 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대체로 일반 명사에서 발달했음을 보여 준다. 의존명사로만 쓰이는 경우와 의존명사와 자립명사로 쓰이는 경우 등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틀어 ‘분류사(分類詞, classifier)’라 부르기도 한다.⁸⁾

다음에 자립명사로 쓰이는 예문을 먼저 제시하고 화살표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로 쓰이는 예문을 제시한다.

자립명사로의 예문 ⇒ 단위성 의존명사로도 쓰이는 예문

1. 가래

7)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문법론, 68쪽

8) 위의 책, 68쪽.

가래떡은 달콤한 맛이 난다. ⇒ 떡 두 가래. 예전에는 흰 고무신 몇 짝만 있어도 옛 서너 가래와 바꿔 먹을 수 있었어.

2. 가마니

예전에는 농한기인 겨울에 짚으로 가마니를 짜는 농가가 많았다./ 이 쌀을 다 담으려면 가마니가 열 장은 있어야 되겠다./ 운수가 방문을 펼쩍 열고 들어서니 김선여 내외는 지금 한창 가마니를 치고 있다가 시선을 이편으로 돌린다. «이기영, 신개지» ⇒ 우리 집은 일 년에 쌀을 두 가마니 정도 먹는다./ 이 정도 크기의 논에서는 일 년에 쌀을 몇 가마니나 수확할 수 있습니까?

3. 강다리

강다리를 괴다. ⇒ 장작 한 강다리.

4. 공기

공기(空器)

찬장에 있는 공기 하나만 가져 오너라. ⇒ 얼마나 굶주렸던지 그는 밥 세 공기를 단숨에 먹어 치웠다./ 쌀을 한 공기씩 가져오기로 하였다.

5. 광주리

광주리에 사과를 가득 담았다./ 동네 아낙들이 광주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고추를 따러 갔다./ 여인은 빨래한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최인호, 지구인» ⇒ 사과 한 광주리.

6. 그릇

반찬 그릇/ 바느질 그릇/ 화장품 그릇/ 사기 그릇/ 플라스틱 그릇/ 그릇을 부시다/ 그릇을 비우다/ 그릇을 씻다/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다/ 식사 후 그릇을 치우다. ⇒ 설렁탕 한 그릇을 시키다/ 그는 한 끼 식사로 밥을 두어 그릇을 먹는다./ 그는 걸신들린 사람처럼 밥 두 그릇에 국 세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다.

7. 동

나무를 **동**으로 묶다/ 풀을 베어 **동**을 짓다. ⇒ 옷놀이를 하다 한 **동**을 하였다.

8. 동이

머리 위에 찌리를 얹고 **동이**를 이었다./ **동**이에는 물이 반쯤 차있을 뿐, 오랜 장마로 흙내가 물씬거리는 부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수산, 유민»
⇒ 불과 칠팔 인밖에 안되는 식구지마는 한 광주리 밥과 한 **동이** 국, 한 **동이** 막걸리, 한 **동이** 승냥을 다 먹어 버리고 말았다. «이광수, 흙»/ 우물의 물은 날마다 더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 집에서 두 **동이**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다. «박화성, 한귀»

9. 물

물 한 모금/**물로** 입을 안을 행구다/ **물**을 긴다/ **물**을 마시다/ **물**을 붓다/ **물**을 뿌리다/ **물**을 엮지르다/ **물**이 뽕뽕 얼다/ **물**이 맑다/ **물**을 두 잔이나 들이켰다/ 그는 **물** 묻은 손을 바지에 쓱쓱 문질렀다. ⇒ 한 **물** 빨다

10. 못

못 하나 가져 와라 ⇒ 땀감은 아예 말뚱, 소똥을 말려 쓰고, 몇 **못** 안 남은 조짚은 마소를 먹였다.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11. 바가지

바가지로 물을 뜨다/ 어머니는 밥을 짓기 위해 **바가지**에 쌀을 담아 나가셨다./ 옷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가지**로 우거짓국을 퍼 담아 준다. «유현중, 들불» ⇒ 쌀 두 **바가지**/ 물 한 **바가지**. 재수가 좋으면 손가락만 한 고구마 이삭을 한 **바가지**나 모을 수도 있었다. «이문열, 영웅 시대»

12. 바구니

바구니에 나물을 담다/ **바구니**를 끼고 시장에 가다/ **바구니**에 과일을 가득 채우다/ 박문혜의 팔이 어떻게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넣은 저자 **바구니**를 들 수가 있겠는가. «이병주, 행복어 사전» ⇒ 과일 한 **바구니**.

13. 바탕

아랫방 등잔걸이 **바탕**에 있는 광술에 불을 달려 가지고 나와서 뒤꼍으로 돌아가는 중에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홍명희, 임궏정》/ 때때로 청량리로 나가고 들어오는 전차 바퀴의 **바탕**에 스프링 하고 갈리는 소리가 처량하게도 동대문 밖 고요한 공기를 울린다.《나도향, 환희》 ⇒ 동진은 연무정 근처, 서진은 용연 근처에 주둔했는데 섬에서 불과 활 두 **바탕** 거리였다.《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14. 밭

밭 한 뼤기/ **밭**을 일구다/ **밭**을 갈다/ **밭**을 매다/ **밭**에 씨를 뿌리다. ⇒ 세 **밭**을 가다.

15. 배

배가 나오다/ **배**가 아프다/ **배**에 힘을 주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점심을 먹지 못해 **배**가 많이 고했다./ 그는 **배**를 깔고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 **배**가 쓰린 것이 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탁자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한수산, 부초》 ⇒ 그 돼지는 1년에 두 **배**나 새끼를 낳았는데, 한 **배**마다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16. 벌

옷을 **벌**로 맞추다. ⇒ 바지저고리 한 **벌**/ 반상기 세 **벌**/ 공구 몇 **벌**/ 한편 구석에는 개어 놓은 이부자리가 서너 **벌**쯤 쌓여 있다.

17. 보시기

김치 **보시기**/ **보시기**에 깍두기를 담다 ⇒ 나박김치 한 **보시기**.

18. 뺨

뺨을 재다/ **뺨**이 크다. ⇒ 한 **뺨**/ 그 애가 너보다 적어도 두 **뺨** 정도는 더 크다.

19. 삼태기

아이들과 아낙네들은 **삼태기**에 자갈들을 담아다 부엌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 세 **삼태기**를 들어다 놓았다.

20. 삽

시멘트를 **삽**으로 개다/ **삽**과 곡괭이로 구덩이를 파고 김장독을 묻었다. ⇒ 시멘트 두 **삽**/ 흙 한 **삽**/ 그는 부드러운 흙을 몇 **삽** 조심스럽게 뿌렸다. 《이원규, 훈장과 굴레》

21. 섬

보리를 **섬**에 가득 담다/ 부민들이 명석과 **섬**을 가져다 깔고 그 위에 가져다 깔고 그 위에 부상자들을 눕혔다. 《송기숙, 녹두 장군》 ⇒ 벼 한 **섬**을 지게에 지다 /군사들은 어백미 석 **섬**을 명석 위에 쏟아 부었다. 《박종화, 임진왜란》

22. 숟가락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 ⇒ 두어 **숟가락**/ 그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밥상을 물렸다.

23. 찜지

찜지에서 담배를 꺼내다/ 할아버지는 **찜지**에서 꼬깃꼬깃 구겨 넣어 둔 천 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그는 때때로 동구의 사당 반석 위에다 목판을 내려놓고 **찜지**를 풀어 누런 종지와 부싯돌을 꺼내면서... 《이동하, 우울한 귀향》
⇒ 담배 한 **찜지**/ 바늘 한 **찜지**/ 부시 한 **찜지**.

24. 아름

또출네는 하늘과 땅을, 온 세상의 초목과 강물을 **아름** 속으로 품어 넣듯 두 팔을 활짝 벌리어... 《박경리, 토지》 ⇒ 꽃을 한 **아름** 사오다 / 전날 초저녁 몇 **아름**이나 되는 장작으로 뜨겁게 달구어졌던 방은 어느새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이문열, 그해 겨울》

25. 입

입이 크다/ **입**을 벌리다/ **입**을 다물다. ⇒ 한 **입**만 먹어 보자./ 사과를 두세 **입** 베어 먹다.

26. 자루

곡괭이 자루를 쥐다/ 호미 자루가 부러졌다./ 그는 자루 없는 낫과 괭이를 새끼에 묶어 들고 있었다. <<박경리, 토지>> ⇒ 연필 두 자루/ 총 한 자루/ 창 한 자루/ 호미 열 자루를 준비해라./ 그들의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도 무기는 없고 세 자루의 도끼와 배낭이 보였다. <<이원규, 훈장과 굴레>>/ 그는 가죽 주머니에서 칼을 한 자루 꺼내어 그리로 건주어 보았다. <<김동인, 젊은 그들>>

27. 전

한 전에 얼마 하나요? ⇒ 갈퀴나무 한 전을 해 오다.

28. 접시

사기 접시/ 반찬 접시/ 접시를 깨다/ 접시에 음식을 담다/ 흰 행주치마 입은 새댁은 벚나무의 버찌를 따서 서방님 드린다고 흰 접시에 담아서 푸른 그들이 드리운 마루방 찬장 위에 놓아두더니……. <<박경리, 시장과 전장>> ⇒ 떡 한 접시/ 과일 두 접시.

29. 젓가락

젓가락 한 벌/ 젓가락 두 매/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탁 위에 놓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다/ 서양인은 푸딩 같은 것은 스푼이 아니면 떠 먹을 수 없지만, 동양인은 푸딩에 못지않게 부드러운 두부를 젓가락으로 집는다. <<조풍연, 청사 수필>> ⇒ 라면 한 젓가락만 먹을게.

30. 종구라기

그는 여자들을 훑어 대며 종구라기로 술을 떠 마셨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 막걸리 한 종구라기만 퍼 주세요.

31. 종지

양념장 종지/ 복연은 선반 위의 상을 내려서 재빨리 닦아 내고 간장 종지, 김치 보시기, 수저를 챙겨 놓는다. <<박경리, 토지>>/ 그들은 일제히 도시락을 폈다. 어떤 아이는 콩보리밥에 새우젓 종지 하나가 구석에 쑤셔 박혀 있었고….

《최일남, 숙부는 늑대》 ⇒ 간장 세 **종지**/ 큰 상에는 초간장 두 **종지**를 놓았다.

32. 주먹

주먹을 쥐다/ 주먹을 휘두르다/ 주먹 같은 눈물이 그녀의 뺨에서 흘러 내리기 시작했다./ 당숙모는 어른의 주먹 둘을 합쳐 놓은 것만 한 배를 짊고 있었다. 《한승원, 해일》 ⇒ 사탕을 한 **주먹** 쥐다/ 나뭇짐에 한 **주먹**씩 따 얹어 가지고 돌아오는 머루가 벌써 맛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한수산, 유민》

33. 지게

지게를 벗다/ 지게를 지다/ 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 나무를 지고 내려오던 아이들이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쉰다. ⇒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지게 해 왔다./ 땀나무 하나 들여오고 물 한 지게 길게 하는 것까지도 더덜이가 없었다.《송기숙, 녹두 장군》

34. 초롱

물 초롱/ 석유 초롱/ 물지게처럼 만든 초롱에 부대에서 먹고 버린 찌꺼기를 담아내다가 을생은 돼지를 길렀다. 《한수산, 유민》 ⇒ 물 한 초롱/ 준비해 둔 석유가 반 초롱쯤 남아 있었다. 《김성동, 만다라》

35. 화

닭이 화에 올라왔다/ 구구거리며 저녁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닭들이 다 화에 오르고 나면 집 안은 갑자기 깊은 정적에 빠진다. 《한수산, 유민》 ⇒ 닭이 세 화 올라/ 삼경이 지나 닭이 한 화 울 때쯤에, 그는 잠이 깨었다.

한자어계에서 자립명사가 단위성 의존명사로 발달되어 쓰이는 것으로는 갑(匣), 건(件), 관(貫), 기(基), 도(度), 등급(等級), 막(幕), 목기(木器), 목판(木版), 문(門), 번(番), 병(瓶), 봉(封), 봉지(封紙), 부(部), 상자(箱子), 선(選), 수(手), 승(乘), 시(時), 시간(時間), 식기(食器), 실(室), 일(日), 자(字), 잔(盞), 점(苦), 조(組), 좌(座), 주¹(周), 주²(株), 주³(週), 주일(週日), 질(帙), 차(車), 촉광(燭光), 촉력(燭力), 탕기(湯器), 통(桶), 판¹(板), 판²(版), 패(敗)가 있는데 이는 이로 보아 한자어계 단위성 의존명사가 자립명사에서 발달되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자립명사로 쓰이는 예문을 먼저 제시하고 화살표 다음에 단위성 의존 명사로 쓰이는 예문을 제시한다.

자립명사로의 예문 ⇒ 단위성 의존명사로도 쓰이는 예문

1. 갑(匣)

이 시계를 빈 **갑**에다 넣어라. ⇒ 담배 한 **갑**/ 분필 세 **갑**.

2. 건(件)

그 **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주말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곱 **건**이 나 일어났다./ 오늘 하루만도 같은 문제로 소송 서류가 네 **건** 접수되었다./ 화재가 동일한 지역에서 잇따라 세 **건** 발생하였다.

3. 관(貫)

나는 그 사람이 세 **관**이나 파는 것을 보았다. ⇒ 감자 세 **관**/ 한 **관**에 얼마입니까?

4. 기(基)

우리는 같은 **기**로 졸업했다./ 이번 **기** 후보생들은 모두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 제8기 졸업생 일동/ 1년을 4**기**로 나누다.

5. 도(度)

도가 지나친 농담/ **도**를 넘어선 친절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 몸에 좋은 운동도 **도**가 지나치면 건강을 해친다. ⇒ 영하 십 **도**.

6. 등급(等級)

신체 **등급**/ **등급** 판정/ **등급**을 매기다/ **등급**을 정하다/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을 품질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 일 **등급** 품질.

7. 막(幕)

막을 짓다. ⇒ 이 연극은 2막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8. 목기(木器)

목기를 깎아 만들다/목기에 밤을 쏟아 놓다. ⇒ 떡 한 목기/ 두부 다섯 목기.

9. 목판(木版)

저녁 먹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모가 삶은 밤을 목판에 가득 담아 들여왔다. <<한무숙, 만남>>/ 빼빼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목판을 이고 다니면서 목 장사, 떡 장사, 과일 장사, 콩나물 장사 안 해 본 것 없이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었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 떡 한 목판.

10. 문(門)

집을 비울 때는 문을 꼭 잠가야 한다./ 그는 화가 난 듯이 문을 쾅 닫았다./ 문이 고장나서 열 수가 없다. ⇒ 대포 다섯 문.

11. 번(番)

번을 서다. ⇒ 둘째 번/ 다음 번 면담은 너이다.

12. 병(瓶)

목이 기다란 병/ 병이 깨지다/ 어머니는 보리차를 병에 부어 냉장고에 넣었다./ 그는 아내한테서 병에 든 술과 달걀 한 꾸러미를 받아 들고 집을 나섰다./ 나는 고추장, 간장, 여러 가지 양념을 작은 병에 담아 주었다. <<박완서, 도시의 흥년>> ⇒ 물 한 병/ 콜라 네 병/ 주량이 소주 세 병이다.

13. 봉(封)

봉을 박다. ⇒ 과자 세 봉/ 약 한 봉.

14. 봉지(封紙)

쓰레기 봉지/ 봉지를 뜯다/ 봉지에 담다/ 외투 주머니에서 해열제 봉지를 꺼내 놓는다. <<심훈, 영원의 미소>>/ 준은 호주머니에 든 군밤 봉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조금 망설이다가... <<최인훈, 회색인>> ⇒ 과자 한 봉지/ 두꺼비는 사탕

몇 봉지, 계란 서너 개, 은단 한 갑, 사과와 빵을 한 보따리 꾸려서 내준다.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아주머니와 같이 먹게 서너 봉지 끊이세요. <<문순태, 피아골>>/ 절차를 밟아 의사 선생님을 뵈옵고 약 한 봉지를 얻어 들고 나왔다. <<김성한, 김가성론>>

15. 부(部)

부의 책임자는 부장이다. ⇒ 행사의 제이 부 순서.

16. 상자(箱子)

케이크 상자/ 상자를 열다/ 물건을 상자에 담아 운반하다/ 소포로 배달된 상자 뚜껑을 여니 옷이 들어 있었다./ 장군이 드디어 등 뒤의 대령으로부터 훈장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를 받아 들었다. <<홍성원, 육이오>> ⇒ 라면 한 상자/ 사과 세 상자/ 음료수 몇 상자만 옮겨 주시오.

17. 선(選)

이제야 사실을 말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난 선에 들지 안 들지도 모르는 작품을 한답시고 한 시간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번에 불참했다.<<이영치, 프린 날 황야에서>> ⇒ 삼 선 의원.

18. 수(手)

한 수 위/ 수가 높다/ 수가 얕다/ 수를 읽다/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 몇 수 앞을 보고 두다 / 이 한 수가 최대의 패착이다. / 한 수만 물리자.

19. 승(乘)

배구 시합에서 첫 승을 올리다/ 이번 바둑에서는 흑이 반집 승을 거두었다. ⇒ 3전 2승 1패.

20. 시(時)

태어난 시가 언제인가? ⇒ 5시 30분/ 지금 몇 시나 되었나?/ 지금은 세시가 조금 넘었다./ 정각 열 시에 만남시다.

21. 시간(時間)

시간 낭비/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 두 시간 동안 책을 읽다/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이 걸린다.

22. 식기(食器)

식기를 씻다/ 식기를 말리다/ 끼니때마다 몇 차례로 나누어 먹인다고 하더라도 식기도 터무니없이 모자랐다.《이호철, 남에서 온 사람들》/ 그날 저녁에는 신부가 식기에 담아 온 흰 참쌀 볶은 팔으로 찰밥을 지어 밥상에 놔 주니라.《최명희, 혼불》 ⇒ 밥 두 식기/ 그는 차례를 기다려 약수를 한 식기 마셨다.

23. 실(室)

과(課)나 부(部)의 위이며 우두머리는 실장이다. ⇒ 객실 10실을 예약하다.

24. 일(日)

23일은 힘이 들었다. ⇒ 삼 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다 / 이번 달 25일은 어머니 생신이다.

25. 자(字)

하늘 천 자/ 무슨 자인지 모르겠다. ⇒ 이름 석 자/ 글자를 한 자 두 자 배우다.

26. 잔(盞)

잔에 우유를 따라 마시다/ 물을 잔에 따라 마시다/ 그는 커피가 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받침 위에 놓았다. ⇒ 우유 한 잔/ 커피 두 잔/ 술 석 잔.

27. 점(點)

종이에 작은 점을 찍다/ 그 그림엔 몇 개의 줄과 점이 있을 뿐이다. ⇒ 백 점을 맞다.

28. 조(組)

조를 짜다/ 조를 평성하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친한 친구와 다른 조가 되어서
섭섭하다. ⇒ 토론을 하기 위하여 한 번을 다섯 조로 나누었다.

29. 좌(座)

임금의 좌에 오르다. ⇒ 보경(寶鏡) 일 좌/ 불체 삼 좌.

30. 주¹(周)

그 도형은 몇 주인가? ⇒ 세 주를 돌았다.

32. 주²(株)

주식에서 24주 ⇒ 국민주 50주를 샀다.

33. 주³(週)

다음 주일/ 지난 주일/ 이 달의 마지막 주일 /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
단위로 보수를 받는다./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만나기 바쁘게 이것저것 묻기 시
작했는데 주로 그 주일의 벌이와 가게의 전망 따위였다. 《이문열, 변경》
⇒ 한 달은 보통 4주로 되어 있다.

34. 주일(週日)

다음 주일/ 지난 주일/ 이 달의 마지막 주일 /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
단위로 보수를 받는다./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만나기 바쁘게 이것저것 묻기 시
작했는데 주로 그 주일의 벌이와 가게의 전망 따위였다. 《이문열, 변경》
⇒ 두 주일/ 5주일/ 여러 주일/ 올해도 몇 주일 안 남았다./ 이 일을 끝내는
데는 약 두 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그가 처음 월급을 받은 날은 마침 월요
일, 한 주일의 일과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영치, 흐린 날 황야에서》

35. 질(帙)

김 교수의 소장본은 질이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다. ⇒ 백 권
짜리 세계 문학 전집 한 질을 들여놓았다.

36. 차(車)

차가 다니다/ 차로 가다/ 차를 몰다/ 차를 타다/ 차에서 내리다/ 정거장에서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서 늦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시동을 거는 차들의 소음이 요란했다. ⇒ 모래 세 차/ 한 차 분량의 배추.

37. 촉광(燭光)

어두웠지만, 촉광 속에 상대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 10층 전구/ 떡엄떡엄 뱃전에 매단 십여 군데의 오백 축 집어등이 출렁대는 바다에 내리비치어 캄캄한 밤의 해면을 무섭도록 검붉게 무들이고 있었다. <<박해준, 이산 별곡>>

38. 탕기(湯器)

큼직한 탕기 하나가 구리 주전자에 그들먹한 술과 함께 나왔다. <<박종화, 전야>> ⇒ 국 한 탕기/ 미음을 한 탕기 비우다.

39. 통(桶)

통에 물을 받아 두다/ 원숭이 집어넣을 통을 만들던 덕보는 손을 놓고 눈발이 뿌리기 시작하는 밖을 내다보았다. <<한수산, 부초>> ⇒ 막걸리 한 통/ 통조림도 몇 통 사 들었다. 산모와 아이들에게 줄 과일과 오징어 발도 사 가져왔다. <<이정환, 셋강>>

40. 판¹(板)

그 가수는 오랜만에 판을 내고 가수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는 가끔 오래된 유성기에 판을 걸고 옛날의 추억에 잠긴다. ⇒ 달걀 두 판.

41. 판²(版)

이번 판은 잘 나왔다. ⇒ 삼 판/ 4판 3쇄.

42. 패(敗)

패를 갈라놓다/ 우길이 동무들은 패를 지어 돌아다니며 울타리 구멍으로 처녀들 널뛰는 것을 구경하였다.<<한설야, 탑>>/ 젊은 패와 늙은 패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막 거리를 마시기 시작했다. <<박완서, 도시의 흥년>> ⇒ 작은 오해 때문에 우리는 두 패로 갈렸다./ 그들은 두 패로 나누어 길을 떠났다./ 또 한 패는 부엌에서 떡을 찌느라고 범석이다.<<이무영, 농무>>

V. 결론

의존명사가 발달되어 있음은 현대 국어의 특질 중의 하나이다. 의존명사라는 명칭 외에도 불완전명사, 형식명사, 안용근이름씨, 메인이름시라는 이름으로 널리 주목을 받아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의존명사의 하위범주인 단위성 의존명사를 연구하였다.

고유어계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로만 쓰이는 것으로는 가마¹, 가마², 가지, 갈이, 갓, 강다리, 거음, 거리¹, 거리², 고리, 괴, 구기, 국자, 군데, 그루, 그릇, 날, 님, 님, 달, 달구지, 동무니, 되, 마리, 마장, 말, 매¹, 매², 모¹, 모², 모금, 바람, 박, 병, 보, 보지락, 살, 새, 손, 술, 쌈, 우리, 움큼, 원, 자밤, 장, 쟁기, 접, 조짐, 줌, 짝, 채, 첩, 축, 칸통, 켈레, 쾌, 탕, 테, 툷, 푼, 해, 활이 있다.

고유어계에서 자립명사가 단위성 의존명사가 자립명사로 발달되어 쓰이는 것으로는 가래, 가마니, 강다리, 공기, 광주리, 그릇, 동, 동이, 물, 못, 바가지, 마구니, 바퀴, 바탕, 밭, 배, 벌¹, 벌², 벌³, 보시기, 뽕, 삼태기, 삼, 섬, 손가락, 씹지, 아름, 입, 자루, 전, 접시, 젓가락, 종구라기, 종지, 주먹, 지게, 초롱, 화가 있다.

한자어계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로만 쓰이는 것으로는 각(刻), 개(個), 경¹(更), 경²(傾), 곤(梱), 광년(光年), 괘(掛), 교¹(校), 교²(絞), 교시(校時), 구(具), 국(局), 권(卷), 궤¹(几), 궤²(櫃), 근¹(斤), 근², 급(級), 기¹(器), 기²(騎), 냥(兩), 년(年), 단(段), 단보(段步), 대¹(代), 대²(臺), 도일(渡日), 동(棟), 두¹(斗), 두²(頭), 두락(斗落), 등(等), 등급(等級), 등성(等星), 량(輛), 령(齡), 리¹(里), 리²(理), 리³(釐/厘), 립(立), 마(碼), 마력(馬力), 막(幕), 매(枚), 명(名), 모(毛), 묘, 무(畝), 문(門), 미(尾), 박(泊), 발(發), 방(放), 배(杯), 번수(番手), 범(犯), 보(步), 본(本), 부대(負袋), 분(分), 불(弗), 상자(箱子), 석¹(石), 석²(席), 세¹(世), 세²(歲), 속(束), 수(首), 승¹(升), 승²(升), 실(室), 엽(葉), 영(令), 위(位), 인(引), 입평(立坪), 작(勺), 장¹(丈), 장²(杖), 장³(張), 재(材), 전(錢), 정¹(町), 정²(政), 정³(錠), 정보(町步), 제(劑), 족(足), 지¹(指), 지²(趾), 차(次), 척¹(尺), 척²(隻), 첩²(貼), 초(秒), 촉(燭), 촌(寸), 추(錘), 축(軸), 칭(秤), 타¹(打), 타²(朶), 통¹(通), 평(坪), 포(包), 포대(布袋), 필¹(疋), 필²(匹), 필³(筆), 하(夏), 할(割), 합(合), 해리(海里), 호¹(毫), 호²(號), 환(圓), 회(回)가 있다.

한자어계에서 자립명사가 단위성 의존명사로 발달되어 쓰이는 것으로는 갑(匣), 건(件), 관(貫), 기(基), 도(度), 등급(等級), 막(幕), 목기(木器), 목판(木

版), 문(門), 번(番), 병(瓶), 봉(封), 봉지(封紙), 부(部), 상자(箱子), 선(選), 수(手), 승(乘), 시(時), 시간(時間), 식기(食器), 실(室), 일(日), 자(字), 잔(盞), 점(苫), 조(組), 좌(座), 주¹(周), 주²(株), 주³(週), 주일(週日), 질(帙), 차(車), 촉광(燭光), 촉력(燭力), 탕기(湯器), 통(桶), 판¹(板), 판²(版), 패(敗)가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가운데에는 의존명사만으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립명사가 의존명사의 기능을 띠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대체로 일반 명사에서 발달했음을 보여 준다.



【참 고 문 헌】

1. 기본텍스트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 단행본

강성일(1993), 『국어학 연구』, 동아대출판부.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5), 『단어 · 문장 · 텍스트』 한국문화사.

고영근 · 구분관(2008), 『우리말문법론』, 집문당.

고영근 · 남기심(1983), 『국어의 통사 · 의미론』, 탑출판사.

권재일(1985),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소당 천시권 박사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형설출판사.

김두봉(1923), 「집더 조선말본」, 탑출판사.

김민수(1960), 국어문법론연구, 통문관.

김형규(1962), 『국어사개설』, 일조각.

남기심 · 고영근(2006),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민현식(1998), 「의존명사」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박성훈(1998), 『단위어 사전』, 민중서림.

서정수(1996), 『현대국어 문법론』, 한양대출판원.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이주행(1987), 「불완전 명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8),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도서출판 한샘.

——(1996), 『한국어 문법 연구』, 중앙대출판부.

이희승(1955), 『초금국어문법』, 탑출판사.

정렬모(1946), 『신평고등문법』, 한글문화사.

- 주시경(1979), 『국어문법』, 탑출판사.
 최현배(1965), 『우리말본』, 정음사.
 허웅(1963), 『중세국어연구』, 정음사.
 홍사만(1985), 『국어 특수조사론』, 학문사.

3. 학위논문

- 강범모(1983), 「한국어 보문명사 구문의 의미특성」, 『어학연구』 19-1, 서울대 어학연구소.
 강복수(1964), 「국어에 있어서의 준자립어에 대하여」 『논문집』 7, 청구대.
 고영근(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 형식명사로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6-1, 서울대 어학연구소.
 ——(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출판부.
 김두웅(1983), 「불완전명사의 의미분석」, 『국어교육』 44 · 4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김목한(1997), 「현대국어의 형식명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 대학원.
 김용석(1981), 「‘دت’의 의미와 통사」, 『배달말』 7, 배달말학회.
 김찬은(1975), 「불완전명사의 통사론적 기능고」,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교육대학원.
 김태곤(1986), 「중세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논문집』 22, 제주대.
 류현미(1989), 「현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대학원.
 박성진(1984), 「불완전명사의 기능고」,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교육대학원.
 손춘섭(1992), 「현대국어의 의존 명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대학원.
 송영주(1985), 「현대국어의 불완전명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대학원.
 안정아(2007), 「현대 국어 의존 명사의 의미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염선모(1982), 「불완전명사에 대하여」, 『여천 서병국 박사 화갑기념논집』, 간행위원회.
 왕문용(1987), 「[사람] 의존명사에 대한 일고찰」, 『최승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1), 「의존명사」,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편.
 윤용선(1989), 「명사구 보문의 보문자 선택제약에 대한 연구 : 의존 명사를

-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 이병모(1991), 「준자립 명사 식별 기준에 대하여」, 『배달말』 16, 배달말학회.
- (1995), 「현대국어 의존명사의 형태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 대학원.
- 이상태(1985), 「매인 이름씨의 분포와 구실(I)」, 『소당 천시권 박사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간행위원회.
- 이준석(1987), 「국어 의존명사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정제한(1998), 단위명사, 문법연구와 자료(태학사), 199-226.
- 정호완(1984), 「의존명사의 체언형성에 대한 고찰」, 『대국어문논총』 2, 대구어문학회.
- (1985), 「의존명사 {이}의 형태론적 구성」,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회.
- (1986), 「의존명사의 형태론적 구성」, 『국어국문학』 95, 국어국문학회.
- 조규태(1973), 「국어의 준자립명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대학원.
- (1979), 「준자립 명사의 인칭대명사적 기능」, 『국어교육연구』 10, 경북대 사대 국어교육과.
- (1989), 「준자립명사 ‘모양’에 대하여」 『배달말』 8, 배달말학회.
- 지길웅(1984), 「의존명사 {것}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 채완(1990), 「국어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67-180.
- 채현식(1995), 「형식명사의 동요상황에 대하여」, 『국어학논집』 2.
- 최현배(1927), 「불완전 이름씨에 대하여」, 『한글』 1-5, 한글학회.
-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 148, 국어연구회.
- 하치근(1989), 「국어 접미사 설정의 몇 가지 문제」, 『국어국문학』 21, 국어국문학회.
- 홍양추(1987), 「국어 매인 이름씨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 대학원.



<Abstract>★

A research on dependent nouns for unit in modern Korean language

Yang Ha-Ya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Tae-Gone

This research is for Modern Korean language and being of a help toward the systematic research by clarifying the features of the dependent nouns for unit which is subcategory of dependent nouns.

In this book, the meaning of dependent nouns for unit will be observed. The analysis on the meaning of dependent nouns for unit will be divided by proper line, Chinese characters line, and foreign language line. Dependent nouns for unit in foreign language line mostly consist of dependent nouns for weights and measures, so they are not discussed in this chapter.

First of all, dependent nouns for unit will be divided by proper and Chinese characters lines; two classification criteria, and then it will be discussed that which ones are only used for dependent nouns and which ones are only used for independent nouns.

In short, below are the details that will be discussed in this research. In chapter II, the features of dependent nouns for unit were discussed. The criterion for judging dependent nouns for unit can be divided by syntactic and semantic criteria. For syntactic criteria, a word that is dependent on an unconjugation adjective

and combined with an unconjugation adjective for number can be an example. For semantic criteria, it has a formal meaning which doesn't have specific demonstrative, doesn't have the meaning of unit, and can't be calculated.

In the chapter III the classification and usage of dependent nouns for unit are observed. The restriction of unconjugation adjective components on dependent nouns for unit are not as various as that of general dependent nouns. Dependent nouns for unit can only have unconjugation adjectives for number. Also they are in combination with postposition like dependent nouns, so it can be said there is no restriction on postposition. Accordingly, it is meaningless to classify them by grammatical function like general dependent nouns. Therefore, dependent nouns for unit are divided by semantic feature and function.

In the chapter IV the development of dependent nouns for unit were observed. There are dependent nouns for unit that can be used only as dependent nouns. Also there are independent nouns that function as dependent nouns. Among the dependent nouns for unit, some can be used only as dependent nouns, and some independent nouns function as dependent nouns. In conclusion, dependent nouns for unit were developed mostly from general nouns. All the expressions that mean unit (used as only dependent nouns, and used as dependent nouns and independent nouns) are also called 'classifier'.

In the chapter V the summary of main subject part will replace the conclusion part.